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실생활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關婉婷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2023년 8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 : 실생활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關 婉 婷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협동과정

지도교수 신 우 봉

關 婉 婷 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배영환 

위 원 최대희 

위 원 신우봉 

# A Study on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for Chinese Learners : Focus on expressions related to real life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Woo-Bong Shin

The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by Wan-Ting Guan  
has been approved by the dissertation committee.

2023. 08

Chair \_\_\_\_\_

Member \_\_\_\_\_

Member \_\_\_\_\_

# 목 차

<국문초록>

<b>I. 서론</b>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2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12
<b>II. 관용표현의 이론적 배경 및 교육 가치</b> .....	15
2.1. 관용표현의 개념 및 특징 .....	15
2.2. 한·중 관용표현의 차이점 .....	21
2.3. 관용표현의 교육 가치 .....	26
<b>III. 한국어 교재와 TOPIK에 실린 관용표현 분석</b> .....	33
3.1.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	33
3.2. TOPIK 기출 문제에서의 관용표현 .....	36
<b>IV. 한·중 관용표현 사용 빈도 조사 및 분석</b> .....	40
4.1. 관용표현의 조사 목록 선정 및 실시 .....	40
4.2. 관용표현에 관한 한국인 실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분석 .....	45
4.3. 관용표현에 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 분석 .....	53
4.4. 관용표현에 관한 한·중 대조 분석 .....	58
<b>V. 결론</b> .....	68
<참고문헌> .....	70
<Abstract> .....	75
<부록> .....	76

## 표 목 차

<표 1> 현실 발음 지각 및 산출 조사 대상자 정보 .....	12
<표 2> 관용표현 조사 대상자인 중국인 정보 .....	13
<표 3> 관용표현 조사 대상 출처 정보 .....	13
<표 4> 학자별 관용표현에 대한 범주 설정 .....	17
<표 5> <연세한국어(2013~2014)>에서 정리된 관용표현 항목 ..	33
<표 6> <연세한국어(2013~2014)> 관용표현의 단계별 항목 수	34
<표 7>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에서 정리된 관용표현 항목 .....	35
<표 8> 등급별 분할 점수 .....	37
<표 9> 35회~83회의 각 회차에서 추출한 관용표현 항목 수 .....	38
<표 10> 35회~83회에서 정리된 관용표현 항목 .....	38
<표 11> 중국인 대상자의 TOPIK 등급과 한국 거주 기간 .....	41
<표 12> 조사용 관용표현 총 항목 수 .....	41
<표 13> 관용표현에 대한 설문조사 절차 .....	42
<표 14> 1차 설문조사 항목(1)부 .....	43
<표 15> 1차 설문조사 항목(2)부 .....	43
<표 16> 2차 설문조사 항목(1)부 .....	44
<표 17> 2차 설문조사 항목(2)부 .....	44
<표 18>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 항목 .....	47
<표 19> 교재 및 토픽에서 중복된 관용표현 64개 .....	49
<표 20> 조사에서 실제 자주 사용되는 관용표현 136개와 서로 겹치는 항목 25개 .....	51

<표 21> 관용표현 인식도 항목 .....	55
<표 22>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에서 관용표현 이해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 .....	57
<표 23> 관용표현의 유형별, 투명성 정도의 대조 결과 .....	59

##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인 실생활에서의 관용표현 사용 빈도 예시 .....	46
<그림 2> 조사 전과 조사 후의 비율 .....	52
<그림 3>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관용표현의 인식 조사 예시 ..	53
<그림 4>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관용표현의 인식도 항목 수 분포 .....	54



## 국문초록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며, 문어나 구어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내국인은 학교 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따르며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 및 TOPIK 기출문제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많은 양의 관용표현을 수집하였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고급 수준의 중국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앞서 수집한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와 이해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파악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목록을 마련해보았다.

핵심어: 관용표현, 목록 선정, 일상생활, 사용 빈도, 설문조사, 중국인 학습자

# I.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실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관용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관용표현 학습은 필수적인 어휘 학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때, 학습자가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해당 사회에서 관습화된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장의 구성요소 각각의 의미가 단순히 결합·축소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언중의 약속을 통해 계승되어 온 간접적이고 융합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일반적으로 ‘관용표현(慣用表現)’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언어적 경제 효과를 위해 또는 표현의 생동감이나 어떤 상황에서 적합한 묘사를 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김영란 2015: 1-2). 다시 말하면, 관용표현이란 어휘의 하위분류에 속하며 문어나 구어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 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용표현을 이해할 때, 단순히 구성요소 A와 B의 의미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미역국을 먹다’라는 한국어 관용표현은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제3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미역국’과 ‘먹다’의 의미로 관용표현의 의미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정확한 의미로 사용하기 매우 어려운 표현이다. 즉, 관용표현의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학교 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자

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따르며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 불편 없이 소통하고 관용표현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대상 교육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관용표현 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중에서 활용가치가 큰 관용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관용표현 중에서 실제 한국인들이 의사소통할 때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 목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관용표현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황수관(2022)에서 정리한 한국어능력시험(토픽)에 나오는 관용표현을 함께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한 관용표현 목록은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관용표현을 비교·분석하여 의미 차이가 큰 관용표현들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을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2. 선행 연구

관용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한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 중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가) 한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

우선 한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로는 장미정(2004), 조창규(2006), 이주희(2009), 박지훈(2011), 이은경(2011), 한미연(2011), 이명순(2013), 이은진·권연지(2018) 등이 있다.

장미정(2004)은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상의 관용표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용표현 지도 방안 제시에 앞서 교사

와 학생을 대상으로 관용표현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 학습과 보충 학습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창규(2006)에서는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개 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관용표현 빈도를 조사하여 목록을 제시하였고, 10개 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총 673개의 관용표현이 1,798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관용표현의 교육은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용표현 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용어, 교육 시기 및 내용 제시 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주희(2009), 박지훈(2011)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연구이다. 이주희(2009)는 관용표현의 문법적 지식에 주목하여 메타언어 활동을 통한 관용표현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관용표현 지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학습자 소집단의 관용표현 학습 활동의 담화 내용을 분석하여 관용표현 학습에서의 메타언어 활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물들이 관용표현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지훈(2011)은 이주희(2009)가 문법적 지식에 주목하였던 것과 같은 논의의 선상에서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관용표현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전의 연구가 국어 사용 기능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해 영역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며, 문법 지식적 측면에서 관용표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고등학교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관용표현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경(2011)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 생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표현 단원을 분석하였다. 즉, ‘단원 구성 방식’과 ‘학습 활동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이며 교육 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이며 단원 초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지식 학습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학습 활동은 대체적으로 문맥을 통해 관용표현을 학습하거나 관용표현을 이용해서 글 짓기, 생각해 보기 등의 관용표현의 개념, 의미, 상황, 효과 등의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주를 이루며, 매체를 활용한 학습 활동의 제시도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더 많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관용표현 의미를 알아보거나 찾아보는 등의 활동은 많은 반면, 문화를 반영하거나 통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된 학습 활동은 빈약하기 때문에 관용표현을 보다 심도 있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연(2011)에서 또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한국어 관용표현의 목록을 정리하여 난이도를 분석함으로써 관용표현에 관한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 방안 또한 마련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이 중요하며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 준비 단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준비 및 도입 단계 제시와 전개 단계, 연습 단계, 활용 단계, 확인 및 평가 단계 등으로 나누어 설계하고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한국어 관용표현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관용표현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에서의 학습 수행 전략에 아쉬움이 있다.

이명순(2013)에서는 국어 교육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본 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표현 내용을 분석하였다. 관용표현 교육이 개념과 의미를 학습시키는 데에 단순한 언어 표현 교육에 머물고 있으며 한 민족의 역사나 문화, 독특한 사고방식 등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관용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시점에서 관용표현에 관한 교수 모형 이론을 바탕으로 관용표현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5개의 단계로, 각 단계마다 3차시, 총 15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관용표현의 개념, 특징, 생성 배경과 유래, 관용표현의 변형 등이 있으며 교육 방법으로는 교사가 관용표현의 문법적

인 것과 의미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문제해결학습과 협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만 시연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용 태도나 학습 효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교수 학습 지도안의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이은진·권연지(2018)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교수·학습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학습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그들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신체어 관용표현을 어렵게 인식하여 관용어를 회피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관용표현의 의미 분석과 교육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이은진·권연지(2018)는 이와 달리 관용표현 속에 내재적 문화적 전제를 교육적으로 논의하고자 시도하는 등 연구의 개별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관용표현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아쉬운 점이 있음을 보였고, 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는 관용표현이 한국어 어휘 체계에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나) 중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

중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 관련 연구로는 후문옥(2003), 박용배(2006), 왕안기(2008), 심혜령·심형철(2009), 신혜인(2010), 張婷婷(2010), 왕보하(2010), 소천(2013), MA JUN(2013), 서환(2013), 천선영(2013), 김은령(2014), 김영란(2015), 고흥희(2015), 엄아려(2018), 김몽(2019), ZHANG WEIXUAN(2019), 모홍윌(2020), 황수관(2022) 등이 있다.

후문옥(2003)에서는 어휘로서의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논술한 다음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 학습교재 연세대학<한국어 1-6>에서 다루는 관용표현을 분석하고 관용표현을 중국어와 비교해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관용표현’, ‘의미는 비슷한데 형태가 부분적으로 다른 관용표현’, ‘형태는 다른데 중국어에서 비슷한 의미가 있는 관용표현’, ‘중국어에서는 유사한 표현이 없는

관용표현’, ‘사자성어’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기초로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 중심으로 의미 전달단계, 의미 숙지단계, 의미 확인단계 등으로 관용어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각 단계별로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용배(2006)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혼란을 거듭해왔던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관용표현의 범주를 한정하여 중국인에게 교육할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각 영역 100개씩, 총 200개의 관용표현을 선정하고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왕안기(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감정 관용표현과 중국어 감정 관용표현을 비교한다. 그 중에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에 관한 한·중 관용표현 가운데 신체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자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탐구하고 한국어 감정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심혜령·심형철(2009)에서는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의미 있는 부류로서의 관용어의 범주와 개념을 설정하고 관용어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관용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로서 관용어의 범주는 어떻게 나누느냐보다는 어휘 덩어리의 범주 안에 함께 받아들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과 한국어 능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어휘 덩어리를 관용어라 지칭하고 그 안에 연어, 숙어, 속담, 성어가 속해 있다고 보았다.

신혜인(2010)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관용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목록 선정 단계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張婷婷(2010)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을 교육할 때 중국인 학습자에게 해당하는 양국 상호간의 민족성, 생활환경, 습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설정 기준에 따른 관용표현 교육항목 선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홍원(2002)에서 제시한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과 비교하여 한국어 교육용 목록을 선정하였는데, 초, 중, 고  
급 3단계에 각각 소속되는 작은 기준인 (1) 한중 관용어의 유사성 정도, (2)  
의미의 투명성 정도, (3) 의미 성격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했다. 그러나 국립국  
어원의 교재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관용표현에 대한 분석 범위가 너  
무 좁아서 수집된 양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왕보하(2010)에서는 ‘체언+용언’형 관용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표현을 의미가 동일한 관용표현, 형식이 동일한 관용표현으로 뽑  
아서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목록을 바탕으로 관용 의미가 동일한 한·중  
관용표현 대응 목록을 체언과 용언의 다르고 같은 점을 기준으로 4가지로 재  
분류하였다. 즉 (1) 체언과 용언이 모두 동일한 경우, (2) 체언은 동일한데 용  
언이 상이한 경우, (3) 체언은 상이한데 용언이 동일한 경우, (4) 체언과 용언  
이 모두 상이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또한, 형식이 동일한 한·중 관용표  
현 대응 목록을 바탕으로 관용 의미가 동일한 경우와 관용 의미가 상이한 경  
우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동형동의(同形同義) 관용표현, 동형이의  
(同形異義) 관용표현, 이형동의(異形同義) 관용표현에 대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대응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한·중 관용표현의 의미 생성 양상을  
살펴보고, 동형이의 관용표현과 이형동의 관용표현이 형성된 원인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적할 점은 대응 목록을 구성할 때 연구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대응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적합한 대응 형식인지에 대해  
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소천(2013)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TOPIK에 나온 관용표현의 현황과 문제점  
을 비교·분석하여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선정하고 중  
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의 모든 요인을 충분히 검  
토하였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관용표현을 교육할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  
별 관용표현 목록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  
고 여겨진다.

MA JUN(2013)에서는 송현아(2008)의 한중 대조언어학의 관용표현 연구에



서 제시된 관용표현 중 150개를 선정한 후, 표현목록을 재분류하였으며 효과적인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법을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 관용표현을 동형동의, 부분 동형동의, 이형동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분류로 삼은 관용표현 수가 많지 않고 송현아(2008)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 아쉽다.

서환(2013)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어로서의 관용어에 대한 정체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선행된 연구에서 교재 분석을 통해 단일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교재를 분석해야 함을 진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용표현 목록 선정 기준을 정하고(초, 중, 고급으로 나눈 단계별이 아닌) 중국어 관용표현의 대조를 통해 인지도와 유사성에 따라 나눈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익숙한 관용어가 사라지든지 사용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교육목록에 영향을 주고 공식적으로 관용표현 사용의 지역성이 강한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용표현 교육 목록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자가 어떤 관용표현을 목록에 넣어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 원칙으로 관용표현 교육을 하면 관용표현 의사소통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시대 흐름에 따라 끊임 없이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외국어로서의 관용표현을 선정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중성을 파악하는 것은 관용표현 교육 연구에 있어서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천선영(2013)에서는 관용표현 중에서 신체에 관한 표현들이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주요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고 연구하였다. 그런데 연구 대상인 한중 양국의 관용표현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표준국어대사전』, 『漢語慣用語詞典(한어 관용어사전)』 에서만 수집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양국의 신체 관련 관용표현들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문화적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것은 좋은 시도이다. 그러나 관용표현에 관해서는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현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김은령(2014)에서는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어 관용표현 의미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를 실시한 네 가지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 맞는 학습 전략, 즉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중국어 관용표현 참조’ 전략,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문맥으로부터의 유추’ 전략,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비유적 의미 추론’ 전략,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배경 지식 이용’ 전략을 활용하여 교수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서의 큰 의의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설정된 학습 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김영란(2015)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표현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중국어 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실제 교재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으며, 한국어 교재 9종에 나타난 관용표현들을 대상 자료로 삼아 교육의 실체를 조사·분석하였고, 관용표현의 번역을 기저에 두고 한국어교육과 접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 활동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주요 성과는 5개로 정리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 구성, 또는 한국 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편찬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홍희(2015)에서는 관용표현의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의 관용표현 습득과 관용표현 사용 오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학습자들의 관용표현 습득이 이상적이지 못했고, 의미는 이해했지만 통사적 특징을 몰라 오류를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관용표현을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관용표현 용법과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용표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간략하게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충분한 이해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를 보인다.

엄아려(201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의 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60명의 재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의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용표현 사전 사용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의 필수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하나의 관용표현을 찾아봄으로써 다른 관용표현까지 익힐 수 있도록 관련어 정보에서는 표제어의 유의어, 반의어, 준말, 참고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몽(2019)에서는 우선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이 활용되는 주요 한국어 교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와 현황을 고찰하였다. 한국어 교육기관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및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한국어 교재, 그리고 중국에서 제작되어 널리 사용되는 두 교재를 대상으로 관용표현의 수록 현황과 제시 방식, 학습 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육 방안으로서 관용표현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의미의 투명도를 기준으로 한 단계별 관용표현 교육과 학습자 중심의 관용표현 교육을 제안하였다.

ZHANG WEIXUAN(2019)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수와 학습을 위해 모국어와 비교 대조하여 교육용 관용표현의 목록을 선정하거나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학습자 언어권별로 한국어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형태와 전체적인 관용표현의 의미를 대조하여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 이형이의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들 관용표현의 학습 단계를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 이형이의 유형 순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같은 동형동의 관용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요소의 난이도나 한국인이 사용하는 빈도 등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므로 동형동의 관용표현 내에서도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5개의 목록을 동형동의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 및 문법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 단계별로 배열하여 초급 31개, 중급 22개, 고급 22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한·중 동형동의 관용표현 목록을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관용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존 연구와 교재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연구가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모홍월(2020)에서는 한국어 관용표현의 이해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한국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언어교육을 중심에 두고 문화교육을 도구로 삼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문화와 언어를 통합한 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한국인들의 가치관, 믿음, 사상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홍월(2020)은 문화를 중심으로 두고 언어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수준별 문화교육과 상호 문화교육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가 교육 방안을 작성하는 데 정확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황수관(2022)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 국립국어원의 『세종한국어』 등을 포함하여 총 여섯 개 교육 기관의 통합 교재,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회차의 중·고급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관용표현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 및 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어 관용표현에 관한 교육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표현 연구 대부분이 교육 방안 모색이나 교육 방법 등의 이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 응용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관용표현 습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인 조사 대상자는 모국어 화자의 실생활에서의 관용표현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연령대로 나누어 10대(고등학생) 7명, 20대(대학생) 15명, 30대(직장인) 8명으로 총 30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관용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중·고급 수준의 토픽(TOPIK)<sup>1)</sup> 4급 이상의 중국인 학습자 20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자의 정보는 <표 1>, <표 2>과 같다.

국적	나이	인원 수
한국	10대	7명
한국	20대	15명
한국	30대	8명
총 인원 수	30명	

<표 1> 관용표현 조사 대상자인 한국인 정보

번호	국적	나이	토픽 등급	한국어 학습 시간
1	중국	20대	5급	4년
2	중국	20대	4급	1.5년
3	중국	20대	5급	5년
4	중국	20대	6급	1년
5	중국	20대	5급	7년
6	중국	20대	5급	5년
7	중국	20대	4급	1.5년
8	중국	20대	5급	5년
9	중국	20대	6급	5년

1) 한국어 능력 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

10	중국	20대	6급	3년
11	중국	20대	5급	5년
12	중국	20대	5급	5년
13	중국	30대	6급	11년
14	중국	30대	5급	2년
15	중국	30대	6급	10년
16	중국	30대	6급	5년
17	중국	30대	6급	10년
18	중국	30대	6급	6년
19	중국	30대	5급	10년
20	중국	30대	6급	8년

<표 2> 관용표현 조사 대상자인 중국인 정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토픽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을 확보하여 한국인의 실제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표현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의 정보는 <표 3>과 같다.

관용표현 조사 대상 출처
<연세한국어(3-1~6-2)>
<연세한국어 활용연습>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
<35회-83회 토픽Ⅱ>

<표 3> 관용표현 조사 대상 출처 정보

본고에서는 『연세한국어(3-1~6-2)』(2013~2014)에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출현 양상 분석 및 35회부터 83회까지 공개된 모든 TOPIK 중·고급 기출 문제에서 관용표현의 출현 양상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중국인을 위한 학습 목록을 선정하였다. IV장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관용표현에 대해 실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조사한 관용표현을 빈도수로 내림차순하여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관용표현 파악 정도를 설문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 한·중 대조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관용표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 관용표현의 이론적 배경 및 교육 가치

본 장에서는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관용표현의 범위를 제시한 후, 관용표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관용표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1. 관용표현의 개념 및 특징

#### 2.1.1. 관용표현의 개념

관용표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1970년대부터 현재 21세기까지의 관용표현에 관한 개념, 명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관용표현에 관한 개념이나 명칭에 관한 용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는 ‘관용구’, ‘익은말’, ‘숙어’, ‘관용어’, ‘관용어구’, ‘성어’, ‘고사성어’, ‘이디엄’, ‘관용표현’, ‘익힘말’, ‘문화어’, ‘관용절’, ‘금기담’, ‘은어’, ‘융합성어’, ‘길흉담’, ‘격언’과 ‘수수께끼’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종택(1971), 김문창(1974), 황희영(1978) 등이 있다. 1980년대까지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통일된 용어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다양하고 활발하게 발전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 관용표현의 개념이나 정의에 관한 명칭의 다양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1990년대 후반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숙어’, ‘이디엄’, ‘성어’, ‘고사성어’, ‘융합성어’, ‘길흉담’, ‘수수께끼’, ‘익은말’과 ‘익힘말’ 등의 용어 사용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뒤로부터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관용구’, ‘관용어’ 그리고 ‘관용표현’ 등 세 가지의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에 관한 여러 명칭들 중에서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관용표현과 관련하여 명칭과 개념에 대한 해석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택(1971)에서는 관용표현은 ‘이디엄’이라고 부르며 이들 이상의 어소가 통사적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통사적인 확장이 가능한 구조, 복수된 語(word)와 대등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성격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句(phrase)와 구별하여 ‘관용어’라고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문창(1974)에서는 속담, 고사성어, 격언, 길조어, 은어, 비유어, 금기어, 수수께끼 그리고 속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용어로 ‘관용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속어’란 두 語辭(어사) 이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句(구)로서 문법, 의미, 그리고 통사 등 모든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 구성요소가 긴밀하게 결합하며, 분리 불가능한 화석형의 문장 형태라고 하였다. 심재기(1986)에 의하면 관용표현은 어휘적 차원으로는 속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그리고 금기어 등이 포함되며, 문장 차원으로는 속담, 고사성어, 금기어, 길흉담, 격어,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속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종합하여 하나의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군의 결합 어휘를 지칭하는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관용표현에 대한 용어나 명칭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개념은 다소 유사하게 규정되었다. 주로 ‘두 개 이상의 어휘나 어휘소 결합’, ‘어휘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제3의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 ‘의미를 유추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움’, ‘대중성, 고정성(화석된 형식), 관습성’ 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자들이 이러한 관용표현의 개념을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관용표현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용표현의 유형에 따라 범주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관용표현의 범주는 학자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예시는 아래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2)</sup>.

---

2) 본 연구에서 관용표현의 범주는 황수판(2022)에서 나오는 <표 II-2>를 참조하였다.

학자(년도)	용어	범주
김문창(1974)	관용어	속어, 성어, 속담, 비유어, 은어, 수수께끼
김규선(1978)	관용어구	고사성어, 속언, 수수께끼, 은어, 속담, 관용구, 인사말, 욕설, 죽은 은유, 융합복합어
황희영(1978)	관용어	고사성어, 은어, 복합어, 죽은 은유, 속담
이택희(1983)	관용적 표현	속담, 고사성어, 은어, 속어, 수수께끼, 관용구, 인사말, 죽은 은유, 융합복합어, 욕설
홍미량(1990)	관용어	광의: 융합복합어, 은어, 고사성어, 속담, 다의어, 비유어, 속어, 수수께끼 협의: 융합복합어, 구, 절
최경봉(1993)	관용어	관용어, 은어, 비속어, 비유 표현, 다의어, 연어, 인사말, 속담, 통사적 속어, 고사성어
김미련(1993)	관용표현	고사성어, 속언, 은어, 속담, 관용적인 비유
문금현(1999)	관용표현	광의: 격언, 금기담, 상용구절, 인사말 협의: 관용문,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민현식(2003)	관용표현	전래: 관용어구, 속담, 수수께끼, 고사성어, 인간관계 표현, 전래 설화 유행: 유행 어구, 유행 인간관계 표현, 유행 성어, 유행 수수께끼, 유행담, 유행 속담
안현희(2005)	관용어	속담, 속어, 복합어, 고사성어, 관용어(구나 절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 은어
윤지훈(2007)	관용표현	일반구절, 은어, 복합어, 속담, 수수께끼, 다의어, 순수 비유 표현
송주영(2008)	관용어	고사성어, 속담, 다의어, 합성어

<표 4> 학자별 관용표현에 대한 범주 설정

김한샘(2003)에서는 자연언어 처리의 관점에서 관용표현의 하위유형을 어휘적 관용표현, 문법적 관용표현, 화용적 관용표현, 속담과 격언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휘적 관용표현을 다시 연어와 속어로 분류하였다. 박진호(2003)에서는 속담과 격언을 제외하면 관용표현을 관용성을 띤 언어 표현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하며 하위유형은 속어 또는 속어 표현, 연어 화용론적 관용표현 그리고 문법적 관용표현 등으로 분류하였다.

관용표현을 상위 범주로 보는 관점과 하위 범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하는데, ‘관용표현’을 상위 범주로 하여 ‘속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 등’을 하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의 경우이고, ‘관용표현’을 하위 범주로,

즉, ‘속담, 은어, 비유어, 수수께끼, 속어 등’과 같은 층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후자의 경우이다. 이러한 차이점의 형성은 관용표현 그 자체를 학자마다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은향(2013)에서는 이러한 관용표현의 범주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관용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광의로, 어떤 곳에서는 협의로 각각 다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각각 논의하였다. 논의한 결과로는 학자들의 관용표현에 관한 연구 범주와 함께 개념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관용표현을 상위 범주로 보고 형식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단어나 어절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구성된 각각 단어의 제1의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체, 그리고 화용적으로는 형식과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여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본다. 즉 본고에서의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되어 그 어휘 자체의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로 정의한다.

앞에서 보인 관용표현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용표현에는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어 관용표현을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1.2. 통사적 특징

첫째, 관용표현에는 구조의 다양성이 있다. 관용표현은 기본적으로 문법 규칙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이루므로 관용표현 학습을 통해 익힌 단어의 결합 방식을 같은 구조의 언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 ㄱ. 주어+서술어: 배가 아프다
- ㄴ. 수식어+주어: 그림의 떡
- ㄷ. 목적어+서술어: 미역국을 먹다

위의 예시와 같이 결합 방식에는 다양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관용표현에는 변형의 제약성이 있다. 관용표현의 구조적 특성은 고정성, 즉 변형 결합에 있다. 일반적인 구는 구성요소의 선택이 자유로움으로

구성요소의 변형은 변형만큼의 의미 변화만을 가져오지만 관용표현은 구성요소의 결합이 제한적이므로 변형 또한 제약되어 구성요소가 변형되면 관용성을 잃어 원래의 관용적인 의미 자체를 상실한다. 변형은 구성성분의 투명성 여부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국어 관용표현은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가져야 하며 어휘의 대치는 제약을 받는다.

- ㄱ. 눈을 주다/손을 주다
- ㄴ. 입이 가뻐다/마음이 가뻐다
- ㄷ. 미역국을 먹다/\*미역국을 하다
- ㄹ. 입이 재다/입이 싸다
- ㅁ. 살을 깎다/뼈를 깎다

예시 (ㄱ)과 (ㄴ)은 성분을 바꿔도 성립되는 관용표현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분을 바꾸면 관용표현의 의미 또한 완전히 바뀌게 된다. (ㄱ)중 명사 성분을 바꿔서 ‘눈을 주다’는 ‘눈짓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손을 주다’는 ‘덩굴 같은 것이 타고 올라가도록 쉼이나 막대기 따위를 대어 주다’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표현이다. (ㄴ)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이 가뻐다’는 ‘말이 많거나 아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옮기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마음이 가뻐다’는 ‘기분이 웬지 홀가분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관용표현이다.

한편, (ㄷ)의 경우에는 관용표현의 명사 성분을 대치하게 되면 구나 절의 제3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관용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ㄷ)에서 ‘미역국을 먹다’는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다”를 의미하지만, 이의 구성요소를 바꾸어 ‘미역국을 끓이다’로 하게 되면 이는 관용표현이 아니고 단순히 “미역국을 만들다”의 일반적인 문장이 된다.

마지막으로 (ㄹ)과 (ㅁ)은 관용표현의 요소는 대치하였으나 표현하는 의미가 같은 경우의 예시들이다. (ㄹ)에서 ‘입이 재다’와 ‘입이 싸다’는 각각 서술어 ‘재다’와 ‘싸다’로 구성요소가 대치되었으나 문장의 의미인 “말수가 많거나 실없이 말이 많다”라는 점에서 두 문장의 관용적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예시 (ㅁ)또한 성분 중의 명사를 바꾸었지만 모두 “몹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관용표현은 구성성분이나 요소의 대치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구성성분을 다른 어휘로 대치하게 되면 다른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단순한 어휘와 어휘의 결합이 제3의 의미를 상실한 일반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관용표현의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대치하여 유사한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이 될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용표현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림의 떡’과 같이 완전히 고정된 비문자적인 형태가 있다. 또 ‘미역국을 먹다’와 같이 시제 등 문법적인 변형이 가능한 형태가 있으며, ‘三分鐘/五分鐘熱度’와 같이 비제한적인 변이형태가 있다.

### 2.1.3. 의미적 특징

첫째, 관용표현에는 은유성이 있다. 관용표현의 생성 과정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관용표현은 새로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비유 형식으로 생성된다. 그중에서도 은유는 제일 두드러진 비유 형식이다. 은유는 유사성에 근거하며 어떤 특성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하여 새로운 요소를 대치하는 표현 방법으로 A=B, 즉 ‘A는 B이다’의 형식을 지닌다.

관용표현은 애초에 문자적인 의미를 지닌 비유어로 생성되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대중화되면서 생성 초기의 선명성과 새로움이 쇠퇴되어 인습화된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명기된다. 따라서 관용표현은 사은유, 고정은유가 되며 그 의미는 비유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표현에서 미역국은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를 할 때나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생각나는 음식이며, 한국인의 유전자에 깊숙히 박혀있는 ‘탄생’과 ‘미역국’의 연관관계는 생각보다 깊은 듯하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풍습을 기록한 ‘조선여속고’라는 문헌에 의하면 “산모가 첫 국밥을 받기 전에 산모 방의 남서쪽을 깨끗이 치운 뒤 쌀밥과 미역국을 세 그릇씩 장만해 삼신상을 차려 바쳤는데, 여기에 놓았던 밥과 국을 반드시 산모가 먹었다”는 대목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때 먹었던 미역국 풍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미역국을 먹는다’는 말은 원래

취직자리에서 떨어졌을 때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강점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을 때, 그 ‘해산--解散’이란 말이 아이를 낳는다는 ‘해산--生産’과 말소리가 같아서, 해산(解散)할 때에 미역국을 먹는 풍속과 관련하여 이 말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말은 ‘해산’ 당했다는 말의 은어로 사용되었으며 취직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시험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관용표현이 나왔다고 한다.

둘째, 관용표현에는 비합성성이 있다. 비합성성은 관용표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으로 관용표현의 의미가 구성성분의 의미의 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합성성은 관용표현이 처음 생성된 당시의 문자적인 의미를 잃고 습관이 되어 하나의 어휘항목이 되는 것이다. 관용표현이 비합성적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용표현의 구성성분들은 관용표현의 전체 해석에 기여하지만 그 구성성분들의 의미는 다소 제한된다(Nunberg, Sag&Wasow 1994).

셋째, 관용표현에는 중의성이 있다. 관용표현은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다의어 또는 동음이의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 얇다’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다’라는 관용적인 의미와 ‘귀가 진짜 얇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동음이의어로 중의성을 지닌다.

## 2.2 한·중 관용표현의 차이점

앞서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관용표현의 특징을 대조하여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2.1. 통사적인 차이

#### (1) 구성 형태

관용표현은 대중의 구어체에서 유래하고, 대중의 사회·생활현상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형식이 짧고 유머와 해학이 있으며, 이미지가 생동감 있고, 음절의 운율이 강하고, 읽을 때 낭랑하고 입에서 나오는 등의 특

정을 가지고 있으며, 뚜렷한 구어 표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관용표현은 음성표현 형태에서 3음절이 주를 이루며 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4음절, 5음절이며, 관용표현의 음절 수가 많을수록 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로 표현하면 삼자격이 주를 이룬다(焦佳, 2011). 예를 들면, ‘穿小鞋, 鴻門宴’ 등이 있다.

## (2) 대치 제약

예) 喝西北風

\*喝東北風

  钻牛角尖

\*钻羊角尖

  炒魷魚, 炒員工的魷魚

  潑冷水, 潑他的冷水

관용표현의 구조적 특징은 고정성과 유연성(이합성)이다. 고정성은 관용표현이 고정어군에 속하며 형식에서 의미에 이르기까지 고정되고 완전하며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楊玉, 2007). 예를 들어 ‘喝西北風--북서풍을 마신다’는 형식상 ‘喝東北風--동북풍을 마신다’, ‘钻牛角尖--소뿔 끝에 파고든다’, 그리고 ‘钻羊角尖--양뿔 끝에 파고든다’식으로 변할 수 없다. 유연성은 관용표현의 또 다른 주요 특징으로 주로 관용표현을 사용할 때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말하며 주로 내장, 이동, 변환, 확장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관용표현의 중간에 단어, 이동어순, 변환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변화 후에도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 특징은 중국어의 이합사(离合詞) 용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연성의 변화는 주로 ‘炒魷魚--오징어 해고’, ‘潑冷水--찬물을 끼얹다’, ‘兜圈子--돌리다’와 같이 ‘老板炒員工的魷魚--사장의 해고’, ‘破他的冷水--찬물을 끼얹다’, ‘繞圈子--돌리다’와 같은 동빈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관용구는 형식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3) 수식의 제약

관용표현의 구성요소는 의미 전환을 이루는 내적 확장에 제약을 받는다.<sup>3)</sup>



즉 수식어를 삽입하면 관용적 의미를 상실하고 일반적인 직설적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관용표현의 구성 어휘는 서로 긴밀한 결합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맥만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면 내적 확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목적어+서술어’ 또는 ‘주어+서술어’ 구성에서 가능하다. 이때 수식어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수식어가 관형어인 경우는 제약을 보이고 부사어인 경우는 자유로운 편이다.

중국어 관용표현은 삽입, 분리, 어순의 도치 및 중첩까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분리란 관용표현이 문장 가운데서 활용될 때 그 가운데 어떠한 글자를 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동사, 목적어 구조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동사 및 목적어 관용표현의 대부분이 분해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수가 적지만 주어, 서술어 구조의 관용표현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出風頭’, ‘出’와 ‘風頭’를 분리시켜 ‘一下’라는 성분을 삽입하더라도 그 의미는 똑같이 유지된다.

어순의 도치란 관용표현이 문장 가운데서 사용될 때 관용표현 구성 글자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衆口難調’를 글자 순서를 바꾸어 ‘難調衆口’로 써도 무방하다. 어순이 도치되어 있지만 의미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관용표현은 성분을 중첩하는 특성도 있다. 성분의 중첩은 관용표현이 문장 내에서 쓰일 때 성분의 일부가 중첩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MA JUN, 2013). 가령 ‘牽紅線’는 ‘중매하다, 중간에서 관계를 맺어준다. 다리를 놔준다’의 의미를 가지고 ‘我看你們兩個挺合适, 給你們牽牽紅線吧.(내가 보기에 너희 둘은 아주 잘 어울리니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다.)’에서 쓰이는데 이는 ‘牽紅線’의牽를 중첩하여 강조한 것이다.

## 2.2.2. 의미적인 차이

### (1) 의미적 이중성

관용표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묘사적이며 대부분 특정 현상의 이미지를 묘

3) 김종택(1993)은 용언형 복합어나 관용어에서 구성요소 간의 의미 결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부정음이법(negative test)이라는 검증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성요소 간의 내적확정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안연희, 2006 재인용).



사한다. 관용구는 어떤 사물이나 행동을 비유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수사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적 특징은 이중성, 즉 본뜻과 비유적 의미이다. 관용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대부분 원래의 의미이며 관용표현으로 사용된 후에는 기본적으로 원래의 문자적 의미가 사용되지 않으며 추상적이고 숨겨진 비유적 인용이 실제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용구를 사용하여 그 비유로 신의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焦佳(2011)에서 ‘領導經常給他穿小鞋--지도자가 항상 그에게 작은 신발을 신겨준다’에서 ‘穿小鞋--작은 신발을 신는다’는 본래 의미는 봉건사회에서 특히 작은 발을 가진 부녀자들이 신는 일종의 자수신을 가리킨다. 옛 중국에서는 작은 발을 아름다움으로 삼았다. 지금은 잔소리, 잔소리사적 양값음 등을 가리킨다. ‘唱對台戲--창대극’은 두 극단이 서로 경쟁하여 동시에 같은 연극을 공연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은 서로 대립하는 쌍방이 같은 종류의 일을 경쟁하는 것을 비유한다.

### (2) 의미적 변동성

의미적 변동성은 관용표현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관용표현의 의미에는 이중성,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인용의 의미가 있다. 관용표현의 의미 변동성은 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전체적인 의미 간의 차이와 부등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변동성은 이중층을 기반으로 한다. 관용표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비유를 통해 발전된 문자적 의미를 말하며, 전체적인 의미는 각 성분의 문자적 의미를 단순하게 합친 것이 아니라 조합하는 과정에서 비유, 대유, 과장, 완곡 등 다양한 수사법의 변이를 통해 발생하므로 관용표현의 의미 변동성도 이러한 풍부하고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나타난다. ‘吃槍藥--탄약 먹다’, ‘背黑鍋--누명을 뒤집어쓰기’, ‘捅馬蜂窩--벌집 쭈시다’, ‘井底之蛙--우물안 개구리’ 등은 모두 수사(修辭)를 비유한 관용표현이며, ‘掏腰包--주머니 털다’, ‘烏紗帽--감투쓰다’, ‘夜猫子--올빼미’ 등은 차대수사(借代修辭)를, ‘坐火箭--순간이동’, ‘嚇破胆--겁먹다, 간 떨어지다’, ‘笑掉牙--지나가던 개(소)가 웃겠다’ 등은 과장된 수사(修辭)를 사용하고, 완곡 수사는 ‘上西天--저승으로 가다’, ‘見閻王--저승으로 가다’ 등이 있다.

### (3) 감정적 색채

관용표현의 의미에 대한 감정적 색채는 부정적인 의미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이 중성적인 의미이며, 긍정적인 의미가 가장 적다. 통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비교적 오래된 관용표현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관용구는 대부분 감정적 색채에서 대중의 사회인사와 일에 대한 불만과 풍자를 반영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특징은 한민족 언어의 예절과 함축적인 특징에 부합한다. ‘唱高調--높은소리’, ‘鋤空子--기회를(빈틈을) 타다, 약점을 노리다’, ‘拍馬屁--알랑방귀 꺾다’, ‘吹牛皮--허풍 떨다’, ‘走后門儿--꽃아 주다’, ‘穿小鞋--물 먹이다’, ‘耳旁風--귓등으로 듣다’, ‘鴻門宴--홍문연’, ‘馬后炮--뒷북치다’, ‘認錢不認人--돈은 알지만 사람은 모른다’ 등이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신중국 건국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성적이고 호의적인 관용표현이 점차 증가하였다. 중성 관용표현으로는 ‘東道主--개최국’, ‘菜籃子--장바구니’, ‘打游擊--떠돌아다니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다’, ‘半邊天--반쪽 하늘’ 등이 있고, 긍정적인 관용표현은 ‘開門紅--개문홍’, ‘定心丸--정심환’, ‘頂梁柱--대들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중성 및 긍정적인 관용표현이 크게 증가하여 세 가지 관용표현의 의미가 균형이 잡히고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발전하며 관용표현의 표현력과 적응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관용표현에 따라 의미 분석 범주가 다르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해석하기 어려운 유형, 즉 의미 분석이 불가능하고 각 의미 성분은 전체 의미 분석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며 관용어의 문자적 의미만으로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단어 간의 조합은 특정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문자 그대로 상식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打秋風--추풍 때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재물, 이익을 요구하거나 어떤 관계에 의지하여 사기를 치고, 횡령하여 뇌물을 받는 것을 말한다. ‘壁上觀--벽상관’는 어떤 사람이 승부를 보고 그 어느 한쪽을 돕지 않는 것을 빗댄 말이고, ‘刮地皮--땅을 긁다’는 탐관오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것을 빗댄 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관용표현은 전형적인 관용표현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현실적이지 않고 분석할 수 없으며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단층 해석형, 즉 관용표현의 이중 의미에서의 문자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용어의 문자적 의미는 실제 존재하며 인간의 인지에 부합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자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심층적 의미는 거의 기본적 의미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관용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심층적 의미와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각 의미 성분은 전체 의미 분석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如：“穿小鞋”“連根拔”“開倒車”“鴻門宴”“耳邊風”“打死虎”等。

셋째, 이중 해석 유형, 즉 의미론적 분석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관용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현실 상황과 일치하고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심층적 의미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심층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변형되며 각 의미 성분은 전체 의미 분석에 큰 영향을 준다. 如：“指揮棒”“擦邊球”“吹鼓手”“斧鑿痕”“打預防針”“卷鋪盖”等 이런 관용표현들의 공통점은 모두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擦邊球--에지(edge)볼을 치다’는 탁구를 치다가 공이 탁구대 가장자리에 떨어져 상대방이 공을 받아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투기심을 가지고 주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sup>4)</sup>

### 2.3. 관용표현의 교육 가치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국어 화자들과 유창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어휘, 문법, 쓰기, 듣기, 말하기 등 각각의 영역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이때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부로서 배우게 되는 관용표현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관용표현의 언어적 가치에는 ‘의미의 강화·심화’, ‘언어의 경제성’, ‘의미의 완곡 표현, 은유적 표현’, ‘언어의 다양화’, ‘역사 이해 효과’, ‘문화나 사회 이해 효과’, ‘한국 사람의 가치관 이해 효과’이 있다. 먼저 ‘의미의 강화·심화’ 가치

4) 焦佳(2011)에서 나오는 ‘打擦边球’에 대해 뜻을 풀어 설명하면 비유적인 의미를 갖추게 되며 본 논문에서는 그것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해서 인용하였다.

는 예시 (1)에서 볼 수 있다.

(1) 의미의 강화·심화

ㄱ. 너를 많이 기다렸다.

ㄴ. 너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겠다.

조현용(2003)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 간에 비언어적인 행위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용표현으로 굳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어 화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모어 화자들은 언어생활에서 흔히 (1ㄱ)에서 나타나는 ‘기다리다’의 의미를 강화·심화하기 위하여 ‘눈이 빠지다’와 같은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1ㄴ)과 같이 표현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눈이 빠지다’라는 관용표현의 의미를 ‘(사람이 무엇을) 몹시 애타게 오래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할 때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다.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면 한국어 문장 전체를 더욱 강하고 생동감 있게 자신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면 한국어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관용표현의 교육에 있어 ‘언어 경제성’의 언어적 가치가 있다. 관용표현의 특성은 이명순(20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소의 어휘 단위로 결합하여 최대한의 표현 효과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언어 경제성의 효과가 있다. 한국어 어휘의 결합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장은 무한하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긴 문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억의 부담을 줄이고, 언어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휘를 활용하여 관용표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몹시 효과적이다(박영순, 1985; 이명순, 2013). 또한, 기존의 어휘를 관용표현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2)와 같다.

(2) 언어 경제성<sup>5)</sup>

5) 이명순(2013)에서는 언어 경제성이란 언어생활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ㄱ. 손

ㄴ. 손을 들다/ 놓다/ 폼다

(2ㄱ)은 한국인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어휘이며 (2ㄴ)은 관용표현으로 사용된 예시이다.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출 때에는 복잡하게 긴 문장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 ‘나 손을 놓았다’라고 함으로써 최소의 발화 노력으로 최대의 설명 효과가 전달되므로 효율적인 언어 의미 전달 효과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관용표현에 관한 언어의 경제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관용표현 교육에서 관용표현의 언어적 가치는 ‘의미의 완곡 표현, 은유적 표현’에 있다. 이명순(2013)에서는 관용표현은 한정된 어휘로 하는 표현으로 말의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관용표현의 사용은 화자의 의미, 정보, 정서 전달을 직접적이기 보다는 비유적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강조, 심화의 의미 전달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관용표현의 ‘의미의 완곡 표현, 은유적 표현’ 가치에 있어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3)과 같다.

(3) 의미의 완곡 표현, 은유적 표현

ㄱ. 죽다

ㄴ. 세상을 떠나다

ㄷ. 눈을 감다

(3ㄱ)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의미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 (3ㄴ)과 (3ㄷ)의 경우에는 같은 의미의 ‘죽다’이지만 관용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러우면서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청자의 감정, 기분을 배려함과 동시에 청자 정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언어의 의미 전달에 있어 효과적이다.

관용표현의 교육적 가치에 있어 ‘언어의 다양화’의 가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관용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다양한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다. ‘언어의 다양화’ 가치에 관한 예는 다음 (4)와 같다.

---

경제관념이라고 언급하였다.

#### (4) 언어의 다양화

- ㄱ. 되지 못하다
- ㄴ. 막 가다
- ㄷ. 상투 위에 올라앉다
- ㄹ. 엉덩이에 뿔이 나다

위의 관용표현들의 구체적인 어휘 표현은 다르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건방짐, 버릇없음’과 같은 비유적인 의미는 유사하다. 이들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다양하게 표현됨으로써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한국어의 매력을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다.

관용표현은 한국의 사회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매개로 볼 수 있다. 관용표현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한국의 문화, 역사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관용표현의 사회·문화 이해의 가치에는 ‘역사 이해 효과’, ‘문화나 사회 이해 효과’등이 있다. 먼저 ‘역사 이해 효과’는 예시 (5)에서 볼 수 있다.

#### (5) 역사 이해 효과

- ㄱ. 시치미를 떼다

관용표현의 생성은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시치미를 떼다’는 고려 시대에 사냥꾼들이 길들인 매로 새나 꿩을 잡는 활동을 뜻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관용표현이며 ‘시치미’는 새나 꿩을 잡는 사냥꾼들이 매의 주인을 구분하기 위해 그 시대에 사냥매에 달아 놓은 이름표이다. 이러한 관용표현의 형성을 이해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 또한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 관용표현을 학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 (6)과 같다.

#### (6) 문화나 사회 이해 효과

- ㄱ. 국수를 먹다
- ㄴ. 미역국을 먹다
- ㄷ. 누워서 떡 먹기
- ㄹ. 건줄(을) 받들다(아내가 되다)
- ㅁ. 교단에 서다

(6ㄱ~ㄷ)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드러내는 관용표현으로 한국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국수, 미역국, 떡’을 흔히 먹기 때문에 만들어진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반영한 관용표현들이다.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음식 문화를 이해하면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결혼하게 되면 ‘오래 행복하게 살다’는 뜻에서 국수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국수를 먹다’라는 표현이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한국의 결혼 문화를 알 수 있다. (6ㄹ)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내나 첩이 되는 것을 겸손하게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과거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관용표현이다. 이처럼 관용표현의 생성에는 한국의 과거 문화배경이 반영되므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이재춘, 2010). (6ㅁ)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이 된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표현이다. 한국 사회에서 ‘선생’의 직업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교단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에 서다’의 한국적인 의미는 ‘선생’의 직업적 특징을 드러내는 관용표현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한국어 관용표현은 ‘한국 사람의 가치관 이해 효과’가 있으며 학습할 필요가 있다(황수환 2022: 40-45).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7)과 같다.

- (7) 한국 사람의 가치관 이해 효과
- ㄱ. 밥값을 하다
  - ㄴ. 한술밥을 먹다
  - ㄷ. 사람값에 가다

(7ㄱ)에서 ‘밥값을 하다’는 밥을 매개로 하여 ‘제 역할을 하다’의 비유적인



의미로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일에 관한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 관용표현이다. 그리고 (7ㄴ) ‘한술밥을 먹다’는 옛날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다. 즉, ‘가족이 하나가 되다’ 혹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가족이나 한 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다. (7ㄷ) ‘사람값에 가다’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비유적 의미로 (7ㄱ)과 유사한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다만 이는 주로 ‘사람값에 못 가다’나 ‘사람값에 가지 못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sup>6)</sup>

이로써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을 학습함으로써 언어의 강화·심화, 언어의 경제성, 언어의 다양화, 언어의 완곡성이나 은유적 표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용표현에 대한 다양한 언어적 가치를 파악하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고등 사고 능력 신장, 언어 표현 효과의 다양성 능력 신장 등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관용표현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

첫째,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문화란 인류 사회 실천에서 형성된 문명과 인간의 사회 역사성에서 형성되는 모든 문명 성과를 포함한다. 그것의 구현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작게는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며 크게는 역사, 건축, 과학기술 등이 있다. 언어는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 관용표현은 문화에 침투하여 생겨난 언어단위로 그것의 발생과 발전은 모두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며, 그것을 통해 한 민족의 어떤 민족심리적 특징, 민족풍속, 민족역사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문화를 기록, 전파하고 있다. 음식에서 옷차림, 고대에서 현대, 방언에서 문어체에 이르기까지 관용표현은 어디에나 있다. 예를 들면 관용어 중의 의식 문화로 모자는 옷차림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扣帽子’를 씌울 수 있다, ‘戴帽子’를 씌울 수 있다, 장교는 ‘烏紗帽감투’, ‘紅頂子빨간 정수리’를 써야 한다.” 등이 있으며 남에게 어떤 부실한 죄명이나 나쁜 명의를 붙여서, 이것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 할 때 ‘拿大

6) 황수판(2022)에서는 한국어 관용표현은 ‘한국 사람의 가치관 이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帽子壓人거짓말로 남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食-식'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대사라 할 수 있는데, '食-식'에 관한 문화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언어 속에 침전된 관용표현 중 '식문화'를 나타내는 것들에는 '吃閑飯공짜밥', '吃白食공짜밥', '鐵飯碗철밥통', '菜籃子장바구니', '鴻門宴홍문연' 등이 있다. 밥그릇에서 기구, 연회에 이르기까지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관용표현에 반영되어 중국인의 '食-식'이 전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문화간 교제 능력을 배양한다. 다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이다. 이러한 교제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의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화상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 교류의 충돌은 때때로 교제의 장애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교제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관용표현과 같은 언어 단위는 그 특수성 때문에 종종 교제 장애의 요인이 된다. 유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제이다. 그러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는 관용표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대량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역사·풍속·민족 심리 등의 요소들과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그들의 한국어 학습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교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으므로 관용표현의 학습은 유학생들의 문화간 교제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셋째,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준다. 관용표현은 형식이 짧고 생동감이 있으며 뜻이 깊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구어화된 살아있는 언어이다. 관용표현을 배우면 많은 고사, 역사 상식을 배울 수 있고, 또 풍토와 인정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 내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관용표현 학습의 재미를 증가시키고 지루한 어휘 학습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 Ⅲ. 한국어 교재와 TOPIK에 실린 관용표현 분석

본 장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관용표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주요 교육기관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공개된 중·고급 TOPIK 기출 문제에서 한국어 관용표현을 추출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 3.1.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세한국어(2013~2014)는 중급 단계에서 활용하는 <연세한국어(3-1~4-2)>와 고급 단계에서 활용하는 <연세한국어(5-1~6-2)>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한국어 연습활동을 하기 위해 제작된 교재별 맞춤 워크북인 <연세한국어 활용연습>까지 포함하였다.<sup>7)</sup> <연세한국어(2013~2014)>에서 나타난 관용표현의 총 항목 수와 단계별 항목 수를 정리하면 <표 5>, <표 6>과 같다.

관용표현 목록 160개
가슴에 콩 나듯, 가슴(이) 벽차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에 (와)닿다, 가슴이 막히다, 가슴이 트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고배를 마시다, 골머리(를) 앓다, 골이 깊다, 국수(를) 먹다, 귀(를) 기울이다, 귀(에) 담다, 귀가 닳다, 귀신(이) 곡하다, 귀에 들어오다, 기름을 붓다, 깃발(을) (휘)날리다, 쫄무니(를) 빼다, 꽃(이) 피다, 꿈(을) 꾸다, 날(을) 잡다, 낮을 가리다, 냄새(가) 나다, 녀(을) 잃다, 녀(이) 나가다, 눈 깜짝할 사이, 눈 뜬 장님, 눈(길)을 끌다, 눈(앞)에 아른거리다, 눈(에) 띄다, 눈(을) 감아주다, 눈(을) 돌리다, 눈(을) 뜨다, 눈(이) 가다, 눈(이) 높다, 눈(이) 부시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눈물(이) 나다, 눈에 선하다, 눈을 떼다, 눈을 의심하다, 눈이 빠지도록, 눈코 뜰 새(가) 없다, 더위(를) 타다, 더할 나위 없다, 돼지꿈을 꾸다, 될 수 있는 대로, 둘도 없다, 땀(을) 흘리다, 땀이 나다, 떡국(을) 먹다, 마음(에)

7) 본고에서는 황수판(2022)에 수록 및 정리된 한국어 교재 <연세한국어(3-1~6-2)> 총 8권을 연구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들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쓰다, 마음(을) 졸이다, 마음(을) 풀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맞다, 마음(이) 통하다, 마음(이) 풀리다, 말 그대로, 말(이) 통하다, 말을 잃다, 말할 것도 없다, 말할 수 없다, 맛(을) 보다, 매(를) 들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를) 식히다, 머리(를) 하다, 몸에 배다, 몸이 가볍다, 몸이 무겁다, 문(을) 닫다, 문(을) 열다, 문이 좁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뛰니 뛰니 해도, 미역국(을) 먹다, 바닥(이) 나다, 바람(을) 쐬다, 박수를 보내다, 박수를 치다, 밤 낮, 밤과 낮이 따로 없다, 비위(를) 맞추다, 빈틈(이) 없다, 빙산의 일각, 뿔(이) 나다, 뿌리(를) 뽑다, 사주(를) 보다, 산경(이) 쓰이다, 상투(를) 틀다, 세상(을) 떠나다, 셈(을) 치다, 속(을) 썩이다, 손(에) 꼽히다, 손(에) 익다, 손(을) 거치다, 손(을) 대다, 손(을) 들어 주다, 손(을) 떼다, 손(이) 가다, 손(이) 크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다, 손꼽아 기다리다, 손에 손(을) 잡다, 손에 잡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숨(숨) 쉬다, 숨(이) 막히다, 신(이) 나다, 신경(을) 쓰다, 싹을 자르다, 썰기(를) 박다, 안간힘(을) 쓰다, 애(를) 쓰다, 어깨가 무겁다, 얼굴이 빨개지다, 열풍이 불다, 왔다 갔다 하다, 이름(이) 있다, 이목을 끌다, 입(맛)에 맞다, 입(을) 다물다, 입에 대다, 입이 (딱) 벌어지다, 입이 닳다, 자리(를) 잡다, 잔(을) 올리다, 잠이 들다, 정신(을) 차리다, 정신(이) 없다, 쥐꼬리만 하다, 찬물(을) 끼얹다, 추위(를) 타다, (입에)침이 마르다, 칫발(을) 디디다, 큰마음(을) 먹다, 큰일(이) 나다, 큰코(를) 다치다, 터(이) 없다, 터를 잡다, 틀에 박히다, 틈(을) 내다, 틈(이) 나다, 판(을) 치다, 피부로 느끼다, 하늘의 별따기, 하루가 멀다고 하고, 한 눈에, 한 우물(을) 파다, 한눈(을) 팔다, 한몫(을) 잡다, 한숨(을) 쉬다, 한잔 하다, 한턱(을) 내다, 호통을 치다

<표 5> <연세한국어(2013~2014)>에서 정리된 관용표현 항목

<표 5>은 <연세한국어(2013~2014)>에서 나타난 관용표현 중 수준별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하여 총 160개 항목을 보였다.

		항목 수	중복된 항목 수	항목 수
중급	3급	23	11	71
	4급	59		
고급	5급	60	17	116
	6급	73		
중·고급에서 중복된 항목 수		27		
전체		160		

<표 6> <연세한국어(2013~2014)> 관용표현의 단계별 항목 수 (단위: 개)

그중 중급 단계에서 3급은 23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4급은 59개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중급 단계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항목 수는 총 82개가 있으나 중복된 관용표현들을 한 개의 항목으로 계산하면 총 71개 항목이 된다. 또한, 고급 단계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의 관용표현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5급 수준에서는 총 60개의 관용표현이 제시되었고 6급 수준에서는 73개, 총 133개의 관용표현 항목이 제시되었다. 중복된 관용표현 항목들을 한 개 항목으로 보면 총 116개 항목이 있으므로 전체 관용표현 가운데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만 이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대상으로만 분석했을 뿐이고, 중국의 각 대학 한국어학과 및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학습용 도구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한국 내에서 출판된 교재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학습용 책을 같이 비교·분석하면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서의 현실적 특징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은 중국과 대만지역을 겨냥해 번역 출간된 책이며 중국인 학습자 전용으로 편집돼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엄선된 관용표현은 시험에 대비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관용표현 목록 169개
가슴(이) 저리다, 가슴에 못(을) 박다 , 가슴이 내려앉다, 가슴이 미어지다/터지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쨍하다, 가시 방석에 앉다, 가시밭길을 가다, 간(이) 떨어지다, 간담(간&쓸개)이 서늘하다, 간을 녹이다, 골치 아프다, 골칫덩어리 , 국수를 먹다, 굴뚝 같다, 귀가 가렵다/간지럽다, 귀가 따갑다.(귀가 아프다), 귀가 뚫리다, 귀를 의심하다, 귀에 거슬리다, 귀에 들어가다, 귀에 익다, 기가 막히다, 기가 죽다, 깨소금 맛, 날개 돋치다, 날개를 펴다, 날은 잡다, 낮이 뜨겁다, 눈(꼴)이 시다,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눈(에) 띄다, 눈(을) 돌리다, 눈(을) 맞추다, 눈(을) 밝히다, 눈(을) 붙이다, 눈(을) 속이다, 눈(을) 피하다, 눈(이) 끼지다, 눈(이) 높다, 눈(이) 많다, 눈(이) 빠다, 눈에 거슬리다, 눈에 밝히다, 눈에 불을 켜다, 눈에 익다, 눈에서 벗어나다, 눈을 끌다, 눈을 의심하다, 눈이

뿔어지게, 눈이 캄캄하다, 눈이 트이다, 닳고 닳다, 담을 쌓다, 땀(을) 들이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비우다, 맛을 들이다, 머리(가) 굽다, 머리(가) 썩다, 머리(가) 크다/굵다,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굽히다/숙이다, 머리(를) 굽다, 머리(를) 깎다, 머리(를) 싸다/싸매다, 머리(를) 하다, 머리가 (잘) 돌아가다, 머리가 가볍다, 머리가 무겁다, 머리를 쥐어짜다, 머리를 짓누르다, 머리에 새겨 넣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물과 기름, 물불을 가리지 않다, 미역국(을) 먹다, 바가지 쓰다/찌우다, 바가지(를) 굽다, 바람을 넣다, 바람을 맞다, 바람을 쐬다, 발 벗고 나서다, 발을 붙이다, 발을 빼다, 발이 넓다, 발이 맞다, 벽을 허물다, 비행기를 태우다, 색안경을 끼다, 속(을) 굽다, 속(을) 꿩이다, 속(을) 빼놓다, 속(을) 썩이다, 속(을) 차리다, 속(을) 태우다/타다, 속(이) 뒤집히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타다, 속(이) 풀리다, 속(이)보이다, 속에 엷히다, 속에 없는 말/소리, 속을 달래다, 속이 꿩다, 손에 놀다/놀아나다, 손에 떨어지다, 손을 꿩다, 손을 대다, 손을 씻다, 손이 놀다, 손이 작다/크다, 애가 타다, 애를 먹다, 애를 쓰다, 어깨가 가볍다, 어깨가 무겁다, 얼굴을 내밀다, 얼굴이 두껍다, 열(을) 받다, 오금이 저리다, 이(가) 갈리다/갈다, 입 (안)이 쓰다, 입 밖에 내다, 입 안에서 / 끝에서 (뽕뽕) 돌다, 입(을) 다물다, 입(을) 막다, 입(을) 맞추다, 입(을) 모으다, 입(을) 씻다/ 닦다, 입(이) 가볍다 / 싸다, 입/말문이 떨어지다, 입만 살다, 입만 아프다/입이 아프다, 입에 (게)거품을 물다, 입에 달고 다니다, 입에 담다, 입에 대다, 입에 맞다, 입에 붙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을 딱 벌리다, 입이 무겁다, 입이 짧다, 잔을 올리다, 죽을 쑤다, 쥐 죽은 듯하다, 쥐구멍에 들어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진땀을 흘리다, 찬물을 끼얹다, 찬바람이 불다, 찬밥 더운밥 가리다, 코 문은 돈, 코(가) 꿩이다, 코(가) 빠지다, 코가 납작해지다, 코가 높다, 코가 비뿔어지게/비뿔어지도록, 코앞에 닥치다, 파김치가 되다, 피땀을 흘리다, 한술밥을 먹다, 한술 더 뜨다, 허리가 부러지다, 허리가 휘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허리를 굽히다

<표 7>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에서 정리된 관용표현 항목

### 3.2. TOPIK 기출 문제에서의 관용표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하는 TOPIK으로 함)은 한국 교육부의 감독 아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주관 운영하는 시험이다. TOPIK은 1999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3회차(1, 2회 미상)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로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쳤으며, 2023

년 4월까지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87회의 시험까지 주관하여 진행해 왔다. 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와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sup>8)</sup>

TOPIK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크게 두 번의 개편을 진행하였다. 먼저 1999년의 3회 시험부터 2005년의 9회 시험까지 중급과 고급 시험은 각각 3급, 4급, 5급, 6급으로 총 4부의 시험으로 구성되었다. 즉 학습자들이 해당 시험을 참여하여 합격하면 해당 한국어 능력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2006년 9월 10회의 시험부터 2014년 4월 34회 시험까지의 TOPIK은 초급 외에도 중급과 고급 등 두 가지의 시험지가 더 있었다. 또한, 2014년 7월 20일의 35회 시험부터 현재까지 시험수준은 토픽 I (TOPIK I), 토픽 II (TOPIK II) 두 가지가 있다.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토픽 I의 시험을 응시하고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토픽 II의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토픽 (TOPIK)은 획득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별 분할 점수는 <표 8>과 같다.<sup>9)</sup>

구분		등급 결정	
초급	토픽 I	1급	80~139
		2급	140~200
중·고급	토픽 II	3급	120~149
		4급	150~189
		5급	190~229
		6급	230~300

<표 8> 등급별 분할 점수

TOPIK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읽기·듣기·문법 등 종합 능력을 평가·판단하는 시험으로써 이를 분석하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 또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TOPIK 기출 문제에서의 관용표현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관

8) 출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참조하였다.

9) <https://www.topik.go.kr>에서 '시험 소개'를 참조하였다.

용표현을 교육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5회 이후에 TOPIK은 다시 개정돼서 중급 이상의 시험은 ‘TOPIKⅡ’로 통합돼서 치루어진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수가 시험지에 따라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35회부터 83회까지 공개된 시험 회차는 35회, 36회, 37회, 41회, 42회, 47회, 52회, 60회, 64회, 83회 총 10회이고 구체적으로 추출한 문항 수는 다음<표 9>와 같다.

회차	35회	36회	37회	41회	42회	47회	52회	60회	64회	83회
항목 수	14	13	15	13	5	12	14	12	12	7
중복된 항목 수	31									
전체	86									

<표 9> 35회~83회의 각 회차에서 추출한 관용표현 항목 수(단위: 개)

<표 9>를 살펴보면 TOPIK 시험 총 10회만 분석하여서 관용표현이 나타나는 항목 수를 조사하는 데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황수판(2022)에서 분석한 2회부터의 TOPIK 기출 문제에서 관용표현이 나타난 항목 수 통계 결과를 보면 해가 갈수록 관용표현 수가 줄어들고 있다.<sup>10)</sup> 그러나 관용표현 등장 횟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더라도 관용표현 항목 자체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TOPIK의 개혁 회차 35~83회로 관용표현 출현 항목 수를 분석할 것이다. 35회 이후부터 중급 이상 시험은 한 부의 시험지로 편성되었는데 83회까지 기출 문제에서 총 86개의 관용표현이 나타났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관용표현 목록 86개
가면을 벗다, 가슴(이) 떨리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터지다, 가슴을 울리다, 갈 길이 멀다, 고개(를) 들다,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골치(가) 아프다, 귀(를) 기울이다, 굵(이) 가다, 기(가) 막히다, 길을 열다, 꿈(을) 꾸다, 눈(에) 띄다, 눈(을) 감다, 눈(을) 감아주다, 눈(을) 맞추다,

10) 본 연구에서 2회부터의 TOPIK 기출 문제에서 관용표현이 나타난 항목 수 통계 결과는 황수판(2022)에서 나오는 <그림 Ⅲ-16> 참조하였다.



눈(이) 부시다, 눈물(이) 나다, 눈물이 (핑) 돌다, 눈살(을) 찌푸리다, 눈앞이  
 컴컴하다, 눈에 들어오다, 눈치(가) 보이다, 눈치(가) 빠르다, 담(을) 쌓다,  
 뒷등으로 들다, 등(을) 떠밀다, 땀(을) 흘리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잡다, 마음이 무겁다, 말 그대로, 말(이) 통하다, 머리(를)  
 맞대다, 목소리(가) 크다, 목숨을 잃다, 못(을) 박다, 문(을) 닫다, 문(을)  
 열다, 바람(을) 쐬다, 박수를 치다, 발 벗고 나서다, 발(을) 빼다, 발(이)  
 빠르다, 발걸음을 맞추다, 발목(을) 잡다, 비교(가) 안 되다, 비행기(를)  
 태우다, 세상을 바꾸다, 손(에) 꼽히다, 손(을) 떼다, 손뺌(을) 치다,  
 손사래(를) 치다, 손에 땀을 쥐다, 손에 잡히다, 손에 쥐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신경(을) 쓰다, 앞뒤(를) 가리다, 앞뒤(를) 재다, 애(를) 쓰다, 열(을)  
 올리다, 이(를) 갈다, 이름(을) 걸다, 이름(이) 있다, 인연을 맺다, 입 밖에  
 내다, 입(맛)에 맞다, 입(을) 떼다, 입(을) 열다, 입이 (딱) 벌어지다,  
 자리(를) 잡다, 장(을) 보다, 정신(이) 없다, 제 눈에 안경, 진땀(을) 흘리다,  
 천하를 얻은 듯, 콧대(가) 높다, 피(가) 나다, 한 눈에, 한 몸이 되다, 한술  
 더 뜨다

<표 10> 35회~83회에서 정리된 관용표현 항목

35회 시험 이후에 공개된 회차별 관용표현 항목 수를 보면 34회 이전보다  
 훨씬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83회까지 시험에  
 서 관용표현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점 역  
 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 관용표현이 여전히 중  
 요함을 나타내며, 앞으로는 단순히 관용표현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  
 라 자주 쓰이는 중요한 관용표현 위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 IV. 한·중 관용표현 사용 빈도 조사 및 분석

### 4.1. 관용표현의 조사 목록 선정 및 실시

#### 4.1.1. 조사 대상 및 조사 목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 목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30명(1차 조사), 한국어 실력 중·고급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20명(2차 조사)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표현 조사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1차 한국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하거나 졸업한 한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나이대는 10대(고등학생), 20대(대학생), 30대(직장인)으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의 등급 판단을 위해 TOPIK 등급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하였다. 특히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로만 선정하였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은 학습자 표본이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언어 환경이다. 즉,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방법은 목표 언어의 국가에 가서 생활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Gullahorn(1963)의 교차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타국에서 생활할 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허니문 단계, 문화 충격 시기, 그리고 문화 적응 단계 등 3개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적응할 때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모홍월, 2020:57).<sup>11)</sup> 그래서 중국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1년 이상 거주

11) 허니문 단계란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초기 상태에 이에 대한 기대감 혹은 호기심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충격이란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이 문화 적응의 허니문 단계를 넘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 적응 단계란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문화 충격 시기가 지나가고 현지의 언어, 관습, 문화 등을 학습해 나가면서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과정을 말한다(Gullahorn, 1963; 모홍월, 2020 재인용).

해은 대상자로만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TOPIK 등급과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의 분포는 <표 11>과 같다.

등급	거주 기간	조사 수	
4급	1 - 2년	2명	2명
5급	2 - 5년	7명	9명
	5년 이상	2명	
6급	1 - 2년	1명	9명
	2 - 5년	3명	
	5년 이상	5명	
전체		20명	

<표 11> 중국인 대상자의 TOPIK 등급과 한국 거주 기간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 시간이 매우 짧았던 설문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20부만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연구 결과는 추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앞서 III장에서 <연세한국어(3-1~6-2)> 교재, 중국인 전형으로 편집된 한국어책과 공개된 TOPIK 중·고급 기출 문제에서 관용표현의 출현 양상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용표현들에 관한 통계결과를 보면 총 351개 항목이 있으며, 이 중에서 중복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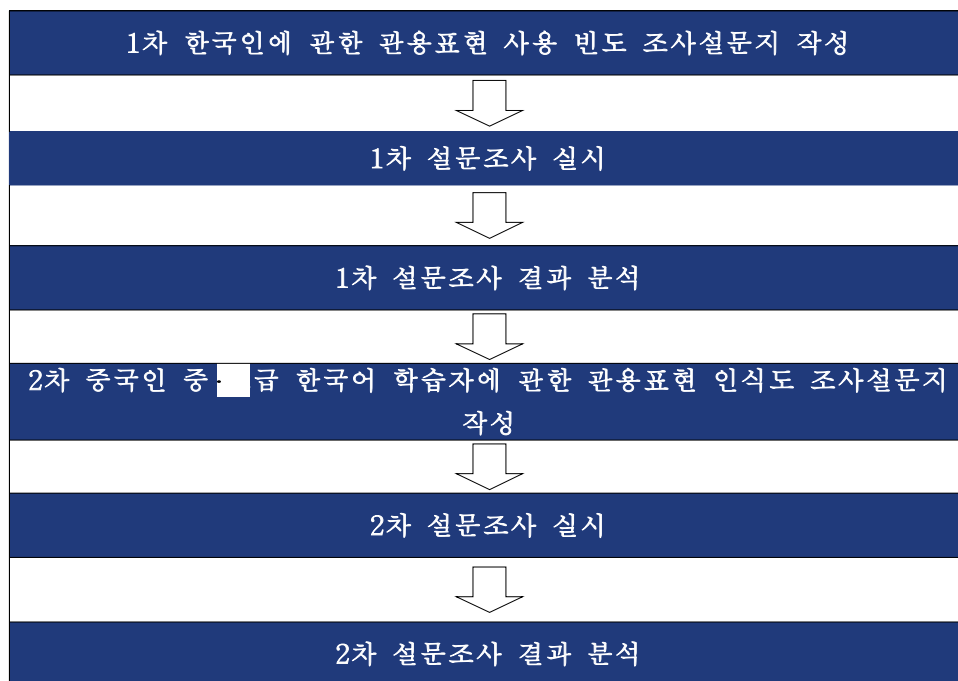
출처	항목 수	총 항목 수	중복된 항목 수
<연세한국어(3-1~6-2)>	160	415	64
<연세한국어 활용연습>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	169		
<35회-83회 토픽 II>	86		
전체		351	

<표 12> 조사용 관용표현 총 항목 수 (단위: 개)

<연세한국어(3-1~6-2)>에서 160개 항목,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에서는 169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35회-83회 토픽Ⅱ>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항목 수는 86개이다. 이처럼 앞선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항목 수는 총 415개가 있으나 중복된 관용표현들을 한 개의 항목으로 계산하면 총 351개 항목이 된다.

#### 4.1.2. 조사 방법 및 절차

설문지는 요구분석에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도구이다(장린, 2020). 설문지는 관용표현 학습에 대한 요구 조사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관용표현 학습에 관한 인식이나 학습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sup>12)</sup>를 진행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사 결과는 학술 연구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관용표현에 대한 설문조사 절차

12) '问卷星' 이라는 중국 포털사이트에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배포하였다.

<표 13>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약 3주간의 기간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하고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먼저 한국인 나이대별 3명씩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배포하기 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철영, 2019: 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설문조사의 결과를 먼저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먼저 1차 조사는 주로 한국인의 나이대와 한국에서 정규 교육 체계를 나왔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14>과 같다.

1. 귀하께서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A 10대	B 20대	C 30대
2.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정규 교육 체계를 나왔나요?		
A 예	B 아니요	

<표 14> 1차 설문조사 항목(1)부

다음으로 앞서 정리한 총 351개의 관용표현들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미사용’, ‘가끔 사용’, ‘자주 사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때 ‘問卷星’이라는 조사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15>와 같다.

3. ‘가슴(이) 아프다’ 이 관용표현을 자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나요?		
A 미사용	B 가끔 사용	C 자주 사용
4. ‘눈(에) 떠다’ 이 관용표현을 자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나요?		
A 미사용	B 가끔 사용	C 자주 사용
5. ‘마음(에) 들다’ 이 관용표현을 자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나요?		
A 미사용	B 가끔 사용	C 자주 사용

<표 15> 1차 설문조사 항목(2)부

2차 조사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TOPIK 등급,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나이대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16>과 같다.

1. 귀하께서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A 10대	B 20대	C 30대
2.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1년~2년	B 2년~5년	C 5년 이상
3. 귀하께서는 TOPIK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A 4급	B 5급	C 6급

<표 16> 2차 설문조사 항목(1)부

1차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2차 조사에서는 총 136개의 관용표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관용표현과 그 관용표현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지는 ‘완전히 이해함’,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모르고 있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항목 6번에서는 세 가지 뜻이 있으며 조사 대상은 그 관용표현의 해석을 바탕으로 그 관용표현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17>과 같다.

4. ‘마음(에) 들다’의 관용표현 뜻 ‘(무엇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좋게 여겨짐’을 제대로 이해하나요?		
A 완전히 이해함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C 모르고 있음
5. ‘눈치(가) 빠르다’의 관용표현 뜻 ‘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챈’을 제대로 이해하나요?		
A 완전히 이해함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C 모르고 있음
6. ‘자리(를) 잡다’의 관용표현 뜻 ‘1) (사람이)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함 2) (사람이)일자리나 거처할 곳을 찾아 머무름 3) (생각이)뿌리를 박음’을 제대로 이해하나요?		
A 완전히 이해함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C 모르고 있음

<표 17> 2차 설문조사 항목(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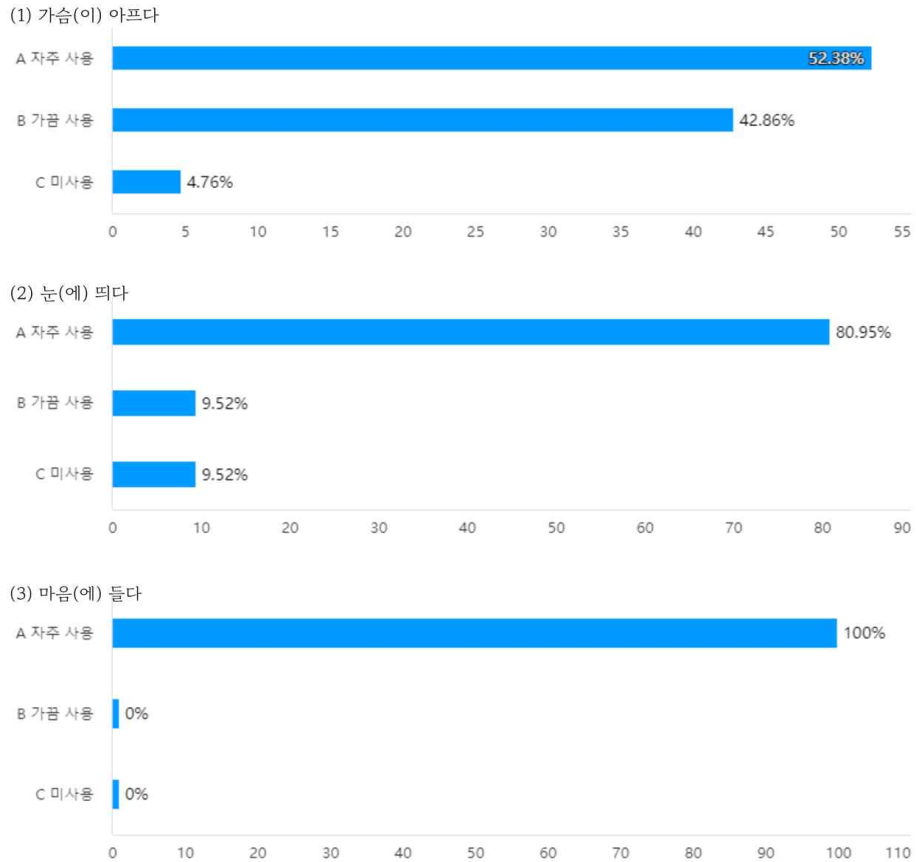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Excel을 사용하여 입력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 4.2. 관용표현에 관한 한국인 실생활에서의 사용 빈도 분석

황수판(2022: 14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관용표현의 사용도 및 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sup>13)</sup>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평소에 그들 스스로 관용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잘 파악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수집한 관용표현 351개를 가지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를 조사했으며 조사한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

13) 황수판(2022)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소에 관용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하여 총 260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167명이었으며 전체 비중의 41.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93명이었으며 전체 비중의 22.9%를 차지하였다.



<그림 1> 한국인 실생활에서의 관용표현 사용 빈도 예시

위에 <그림 1>에서 관용표현 ‘가슴(이) 아프다’에 대해 ‘자주 사용’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16명이었으며 전체 비중의 약 53%를 차지하였다. ‘가끔 사용’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13명이었으며 전체 비중의 약 43%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사용’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1명이었으며 전체 비중의 약 4%를 차지하였다.

앞서 보여준 예시와 같이 조사한 관용표현 351개 중에서 ‘자주 사용’이라는 항목에 절반 이상의 비율로 선택된 관용표현 136개 모두 정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번호	조사 항목	비율	번호	조사 항목	비율
1	마음(에) 들다	100.0%	69	발이 넓다	71.4%
2	눈치(가) 빠르다	95.2%	70	입만 아프다/입이 아프다	71.4%
3	자리(를) 잡다	90.5%	71	눈(길)을 끌다	66.7%
4	갈 길이 멀다	90.5%	72	손(이) 크다	66.7%
5	시간 가는 줄 모르다	90.5%	73	어깨가 무겁다	66.7%
6	정신(이) 없다	90.5%	74	손(을) 떼다	66.7%
7	정신(을) 차리다	90.5%	75	눈(이) 가다	66.7%
8	귀(를) 기울이다	85.7%	76	마음(을) 졸이다	66.7%
9	눈치(가) 보이다	85.7%	77	맛(을) 보다	66.7%
10	신경(을) 쓰다	85.7%	78	머리(를) 식히다	66.7%
11	낮을 가리다	85.7%	79	머리(를) 하다	66.7%
12	신경(이) 쓰이다	85.7%	80	몸에 배다	66.7%
13	한숨(을) 쉬다	85.7%	81	몸이 가볍다	66.7%
14	한잔 하다	85.7%	82	왔다 갔다 하다	66.7%
15	눈(에) 띄다	81.0%	83	입이 닳다	66.7%
16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81.0%	84	쥐꼬리만 하다	66.7%
17	눈(이) 높다	81.0%	85	큰마음(을) 먹다	66.7%
18	고개를 끄덕이다	81.0%	86	큰코(를) 다치다	66.7%
19	눈물(이) 나다	81.0%	87	귀가 가렵다/간지럽다	66.7%
20	말 그대로	81.0%	88	눈(을) 붙이다	66.7%
21	말(이) 통하다	81.0%	89	땀(을) 들이다	66.7%
22	한 눈에	81.0%	90	머리(를) 하다	66.7%
23	마음(이) 통하다	81.0%	91	머리(를) 굴리다	66.7%
24	밤과 낮이 따로 없다	81.0%	92	머리(를) 굽다	66.7%
25	손(에) 익다	81.0%	93	머리(를) 깎다	66.7%
26	잠이 들다	81.0%	94	속(이)보이다	66.7%
27	추위(를) 타다	81.0%	95	입이 짧다	66.7%
28	기가 죽다	81.0%	96	코가 높다	66.7%
29	속(이) 시원하다	81.0%	97	뿌리(를) 뽑다	66.6%
30	입이 무겁다	81.0%	98	속(을) 찌이다	66.6%
31	바람(을) 쐬다	76.2%	99	애(를) 쓰다	61.9%
32	더위(를) 타다	76.2%	100	입(맛)에 맞다	61.9%
33	비교(가) 안 되다	76.2%	101	입(을) 다물다	61.9%
34	날(을) 잡다	76.2%	102	한술 더 뜨다	61.9%
35	기(가) 막히다	76.2%	103	고개(를) 숙이다	61.9%
36	마음(을) 먹다	76.2%	104	박수를 치다	61.9%



37	문(을) 열다	76.2%	105	입(을) 열다	61.9%
38	장(을) 보다	76.2%	106	가슴(이) 벅차다	61.9%
39	등(을) 떠밀다	76.2%	107	꽃(이) 피다	61.9%
40	냄새(가) 나다	76.2%	108	눈 깜짝할 사이	61.9%
41	빈틈(이) 없다	76.2%	109	눈(을) 뜨다	61.9%
42	숨(이) 막히다	76.2%	110	마음(을) 쓰다	61.9%
43	신(이) 나다	76.2%	111	머리(가) 아프다	61.9%
44	큰일(이) 나다	76.2%	112	뭐니 뭐니 해도	61.9%
45	한눈(을) 팔다	76.2%	113	바닥(이) 나다	61.9%
46	한턱(을) 내다	76.2%	114	비위(를) 맞추다	61.9%
47	머리가 (잘) 돌아가다	76.2%	115	틀에 박히다	61.9%
48	손을 씻다	76.2%	116	하루가 멀다고 하고	61.9%
49	열(을) 받다	76.2%	117	가슴에 못(을) 박다	61.9%
50	입(이) 가볍다 / 싸다	76.2%	118	귀에 익다	52.4%
51	마음(이) 맞다	71.4%	119	귀를 의심하다	52.4%
52	말할 것도 없다	71.4%	120	귀에 거슬리다	52.4%
53	손(이) 가다	71.4%	121	낮이 뜨겁다	52.4%
54	마음(을) 놓다	71.4%	122	눈에 거슬리다	52.4%
55	골치(가) 아프다	71.4%	123	눈에 밝히다	52.4%
56	꿈(을) 꾸다	71.4%	124	눈에서 벗어나다	52.4%
57	눈(을) 감다	71.4%	125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52.4%
58	눈(이) 부시다	71.4%	126	물불을 가리지 않다	52.4%
59	땀(을) 흘리다	71.4%	127	바가지 쓰다/씩우다	52.4%
60	목소리(가) 크다	71.4%	128	색안경을 끼다	52.4%
61	문(을) 닫다	71.4%	129	속(이) 타다	52.4%
62	넋(이) 나가다	71.4%	130	애를 먹다	52.4%
63	땀이 나다	71.4%	131	어깨가 가볍다	52.4%
64	몸이 무겁다	71.4%	132	입(을) 맞추다	52.4%
65	숨(을) 쉬다	71.4%	133	입만 살다	52.4%
66	얼굴이 빨개지다	71.4%	134	쥐 죽은 듯하다	52.4%
67	말할 수 없다	71.4%	135	쥐도 새도 모르게	52.4%
68	눈에 익다	71.4%	136	눈이 뜯어지게	52.4%

<표 18>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 항목

<표 18>을 살펴보면 ‘마음(에) 들다’라는 관용표현의 사용 빈도는 100%로 1위를 차지하였고 ‘눈치(가) 빠르다’라는 관용표현의 사용 빈도는 95.2%로 2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자리(를) 잡다’, ‘갈 길이 멀다’, ‘시간 가는 줄 모르

다’, ‘정신(이) 없다’, ‘정신(을) 차리다’ 5개 관용표현은 90.5%의 사용 빈도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 7개 관용표현 모두 90% 이상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정말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실제 많이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조사해 보니 신체를 활용한 어휘들이 등장하는 관용표현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손’, ‘눈’, ‘마음’, ‘머리’ 등 이러한 신체 부위의 어휘로 구성된 관용표현들이 실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앞서 <표 12>에서 분석한 관용표현 총 415개 항목 중 64개 항목이 중복되었다. 따라서 이 64개 관용표현이 교육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항목으로 여겨지며 또 이러한 관용표현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러한 관용표현 64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실제 자주 사용되는 관용표현 136개와 서로 겹치는 항목 수를 계산해보면 25개에 불과했다. 앞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어 교재와 TOPIKⅡ 문항에서 추출한 관용표현 총 351개에서 중복된 관용표현 6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번호	항목	번호	항목
1	가슴(이) 아프다	33	귀에 들어오다
2	눈(에) 띄다	34	날(을) 잡다
3	마음(에) 들다	35	눈(길)을 끌다
4	바람(을) 쐬다	36	눈(을) 돌리다
5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37	눈을 의심하다
6	애(를) 쓰다	38	눈(이) 높다
7	입(맛)에맞다	39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8	입이(딱) 벌어지다	40	마음(을) 놓다
9	가슴(이) 떨리다	41	미역국(을) 먹다
10	고개(를) 들다	42	속(을) 썩이다
11	골머리(를) 앓다	43	손(을) 대다
12	기름을 붓다	44	손(이) 크다
13	눈살(을) 찌푸리다	45	어깨가 무겁다

14	눈에 들어오다	46	입에 대다
15	눈치(가) 빠르다	47	(입에) 침이 마르다
16	더위(를) 타다	48	입(을) 다물다
17	마음(이) 맞다	49	잔(을) 올리다
18	마음이 무겁다	50	찬물(을) 끼었다
19	말할 것도 없다	51	가슴(이) 터지다
20	매(를) 들다	52	골치(가) 아프다
21	비교(가) 안 되다	53	기(가) 막히다
22	뿌리(를) 뽑다	54	눈앞이 킁킁하다
23	세상을 바꾸다	55	눈(을) 맞추다
24	손에 땀을 쥐다	56	담(을) 쌓다
25	손(이) 가다	57	발(을) 빼다
26	췌기(를) 박다	58	비행기(를) 태우다
27	고개를 끄덕이다	59	입밖에 내다
28	이름(이) 있다	60	진땀(을) 흘리다
29	이목을 끌다	61	한술 더 뜨다
30	자리(를) 잡다	62	발 벗고 나서다
31	하늘의 별 따기	63	가슴을 울리다
32	국수(를) 먹다	64	갈 길이 멀다

<표 19> 교재 및 토픽에서 중복된 관용표현 64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어 교재와 토픽Ⅱ문항에서 중복되는 관용표현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빈번히 가르치는 관용표현에 해당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배우게 되는 익숙한 관용표현들이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수(를) 먹다’, ‘미역국(을) 먹다’ 등의 관용표현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기억하는 관용표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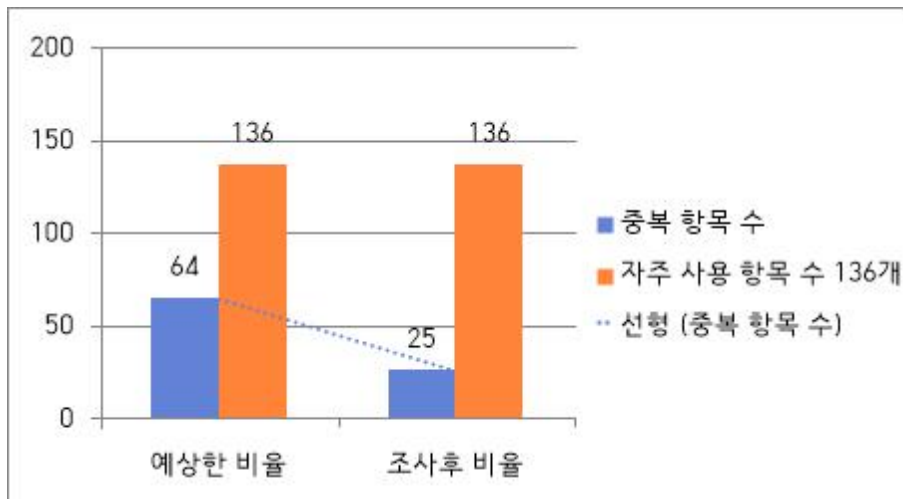
한국어 교재 및 TOPIKⅡ문항에서에서 빈번히 출현하는 관용표현 64개 항목과 조사를 통해 실제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 136개 항목 중 서로 겹치는 항목 25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번호	항목	번호	항목
1	마음(에) 들다	14	손(이) 가다
2	눈치(가) 빠르다	15	마음(을) 놓다
3	자리(를) 잡다	16	골치(가) 아프다
4	눈(에) 띄다	17	눈(길)을 끌다
5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18	손(이) 크다
6	눈(이) 높다	19	어깨가 무겁다
7	바람(을) 쐬다	20	뿌리(를) 뽑다
8	더위(를) 타다	21	속(을) 썩이다
9	비교(가) 안되다	22	애(를) 쓰다
10	날(을) 잡다	23	입(맛)에 맞다
11	기(가) 막히다	24	입(을) 다물다
12	마음(이) 맞다	25	한술더뜨다
13	말할 것도 없다		

<표 20> 조사에서 실제 자주 사용되는 관용표현 136개와 서로 겹치는 항목 25개

예상과 달리 교재에서 많이 중복되게 나타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관용표현이 실제 연구 조사를 통해서도 실생활에서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는 관용표현과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에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표 18>에 제시된 136개 관용표현 중에서 <표 19>, <표 20>에서 분석한 64개 중복 항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비율과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조사 전과 조사 후의 비율

조사 전에는 이 64개의 관용표현들이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되어 출현했기 때문에 모두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표현들이라고 생각되었고 대략 절반 가까이의 사용 빈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조사해 보니 교재에 중복된 관용표현들이 실제 한국인이 많이 쓰는 관용표현 중 약 5분의 1 수준인 25개에 불과했고, 절반에 가까웠던 비율이 5분의 1로 떨어지는 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관용표현의 사용 빈도가 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수(를) 먹다’는 관용표현은 ‘국수--面條’, ‘먹다--吃’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대접받는 걸 의미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국수를 대접했었다. 즉, 이러한 관용표현은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동일한 의미를 가진 ‘시집(을) 가다’, ‘장가(을) 가다’와 같은 어휘로 요즘 일상생활에서는 더 많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비행기(를) 태우다’는 관용표현은 ‘비행기--飛機’, ‘태우다--乘坐’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지나친 칭찬으로 비행기를 탄 듯이 마음이 등실 떠오른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다시 말하면, 칭찬으로 상대방을 높이 추켜올려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문화적 특성이 뚜렷한 관용표현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다.

한편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한 관용표현의 경우,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학습을 위한 상황에서는 학습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쉽게

외면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러한 관용표현들이 한국의 문화나 풍습을 담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4.3. 관용표현에 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인식 분석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들과 대화 할 때 관용표현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관용표현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앞서 조사한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조사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第1题: 마음(에) 들다[뜻:(무엇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좋게 여겨짐] [单选题]

选项	小计	比例
A 모르고 있다	1	5%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다	4	20%
C 완전히 알고 있다	15	75%
本题有效填写人次	20	

表格 饼状 圆环 柱状 条形 折线

第2题: 눈치(가) 빠르다[뜻: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침] [单选题]

选项	小计	比例
A 모르고 있다	1	5%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다	0	0%
C 완전히 알고 있다	19	95%
本题有效填写人次	20	

表格 饼状 圆环 柱状 条形 折线

第3题: 자리(를) 잡다[뜻:1.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함 2. (사람이) 일자리나 거처할 곳을 찾아 머무름 3. (생각이) 뿌리를 박음] [单选题]

选项	小计	比例
A 모르고 있다	2	10%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다	3	15%
C 완전히 알고 있다	15	75%
本题有效填写人次	20	

表格 饼状 圆环 柱状 条形 折线

<그림 3>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관용표현의 인식 조사 예시

앞서 조사한 한국어 관용표현을 사용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식도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관용표현의 인식도 항목 수 분포

조사 결과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인이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관용표현 136개 중에서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84개(61.8%)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아는데 오류가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41개(30.1%)로, 3분의 1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11개(8.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의 사용 빈도가 낮은 관용표현일수록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도 역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관용표현 136개 중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도에 오류가 있는 관용표현 41개와 모르는 관용표현 11개, 총 52개 관용표현의 중국인 인식도를 정리해 보았다.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다’는 △로 표시하고 ‘모르고 있다’는 ⊙로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번호	항목	한국인 실생활에서 사용 빈도	중국인 인식도
1	귀(를)기울이다	85.7	△
2	낮을 가리다	85.7	△
3	눈(에) 띄다	81.0	△
4	잠이 들다	81.0	△
5	추위(를) 타다	81.0	△
6	기가 죽다	81.0	△
7	더위(를) 타다	76.2	△
8	문(을) 열다	76.2	△
9	등(을) 떠밀다	76.2	⊙
10	한눈(을) 팔다	76.2	△
11	한턱(을) 내다	76.2	△
12	머리가 (잘) 돌아가다	76.2	△
13	손(이) 가다	71.4	△
14	문(을) 닫다	71.4	△
15	넋(이) 나가다	71.4	⊙
16	숨(을) 쉬다	71.4	△
17	입만 아프다/입이 아프다	71.4	△
18	손(을) 떼다	66.7	△
19	너 나 (할 것) 없이	66.7	△
20	눈(이) 가다	66.7	△
21	마음(을) 졸이다	66.7	△
22	머리(를) 식히다	66.7	△
23	몸에 배다	66.7	△
24	입이 닳다	66.7	⊙
25	쥐꼬리만 하다	66.7	△
26	땀(을) 들이다	66.7	⊙



27	머리(를) 굴리다	66.7	△
28	머리(를) 굽다	66.7	⊙
29	머리(를) 깎다	66.7	△
30	속(을) 썩이다	66.6	△
31	입(을) 다물다	61.9	△
32	한술 더 뜨다	61.9	⊙
33	고개(를) 숙이다	61.9	△
34	가슴(이) 벅차다	61.9	△
35	눈(을) 뜨다	61.9	△
36	뒀니 뒀니 해도	61.9	△
37	바닥(이) 나다	61.9	△
38	비위(를) 맞추다	61.9	⊙
39	틀에 박히다	61.9	⊙
40	하루가 멀다고 하고	61.9	⊙
41	가슴에 못(을) 박다	61.9	⊙
42	귀에 거슬리다	52.4	△
43	낮이 뜨겁다	52.4	△
44	눈에 거슬리다	52.4	△
45	눈에 밟히다	52.4	△
46	눈에서 벗어나다	52.4	△
47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52.4	⊙
48	물불을 가리지 않다	52.4	△
49	바가지 쓰다/씩우다	52.4	△
50	속(이) 타다	52.4	△
51	애를 먹다	52.4	△
52	취 죽은 듯하다	52.4	△

<표 21> 관용표현 인식도 항목

<표 21>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70% 이상인 관용 표현 중 조사 대상자가 모르고 있는 관용표현은 단 두 개뿐으로, 한국어 능력이 중·고급일 때는 관용표현에 대한 학습이 꽤 많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용 빈도가 높은 관용표현 중에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관용표현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한국어 실력이 중·고급에 이르렀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학습 목적을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용표현 목록이 학습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해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뜻으로 알고 있는 관용표현 항목 중 한국인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용표현들과 전혀 모르고 있던 관용표현 항목을 정리하면 <표 22>과 같다.

1	귀(를) 기울이다	9	머리(를) 굽다
2	눈(에) 띄다	10	고개(를) 숙이다
3	잠이 들다	11	비위(를) 맞추다
4	문을 열다	12	틀에 박히다
5	등(을) 떠밀다	13	하루가 멀다고(멀다 하고)
6	뺨(이) 나가다	14	가슴에 못(을) 박다
7	입이 닳다	15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8	뚝(을) 들이다		

<표 22>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에서 관용표현 이해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

<표 22>를 살펴보면 이해 오류가 있는 41개의 관용표현 중에서 4개의 관용표현을 선정하였는데, ‘귀(를) 기울이다’, ‘눈(에) 띄다’, ‘잠이 들다’, ‘문을 열다’의 4개 관용표현이 조사 결과에서 이해 오류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표현들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했던 관용표현 11개를 포함하여 총 15개 관용표현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워하는 관용표현 15개를 정리·분석하여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표현들에 대해서 한·중 대조 번역하고 분석할 것이다.

#### 4.4. 관용표현에 관한 한·중 대조 분석

관용표현은 기원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관용성의 정도 또한 다양하다. 즉, 각 관용표현은 의미 투명성 정도가 다르며 제3의 의미 유추의 난이도가 다르다. 그리고 학자마다 관용표현에 대한 의미 투명성 정도의 분류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용표현 의미 투명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임지룡(1992), 유덕자(1997), 문금현(1999)을 참조하여 관용표현의 투명성 유형을 ‘반투명형’, ‘반불투명형’, ‘불투명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관용표현의 구성 형태, 의미의 유사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바로 동형동의, 부분 동형동의, 이형동의이다. 한국어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 각각에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가 존재하고, 그 어휘들이 중국어 관용표현에 그대로 쓰이면서, 한·중 관용표현의 의미 간에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을 동형동의로 분류했다. 즉, 형태가 같으면서 의미도 같은 관용표현이 동형동의 표현에 속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며,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많은 관용표현에서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동형동의 관용표현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18>에서 17번) ‘눈이 높다’는 한국어로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의 의미인데, 중국어에도 ‘眼高’라는 동일한 관용표현이 있다. 이런 관용표현들은 중국인 학생들이 습득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 동형동의는 의미는 같지만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 때문에 형태의 일부분이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관용표현도 역시 중국인 학습자가 파악하기 편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표 18>에서 3번) ‘자리를 잡다’는 중국어로 직역하면 ‘抓住位置’,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관용표현은 ‘站稳脚’라고 하고, 한국어로 직역하면 ‘기반을 잡다’이다. 부분 동형동의는 동형동의보다 이해하기 다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술할 이형

동의 관용표현에 비해 습득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형동의 관용표현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한다. 이형동의 표현의 경우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유추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용표현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 <표 23>는 한국어 관용표현을 중국어 관용표현과 대조한 결과이다<sup>14)</sup>.(한·중 관용표현 의미가 같은 동형동의는 1번, 부분적으로 같은 부분 동형동의는 2번,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이형동의는 3번으로 표시하였다. 투명성 정도는 불투명'x', 반불투명'-', 반투명'+ '으로 하였다.)

항목	유형	투명성 정도	항목	유형	투명성 정도
귀(를) 기울이다	②	+	머리(를) 굽다	②	+
눈(에) 띄다	③	-	고개(를) 숙이다	③	x
잠이 들다	②	+	비위(를) 맞추다	②	x
문을 열다	②	+	틀에 박히다	③	x
등(을) 떠밀다	②	+	하루가 멀다고(멀다 하고)	③	+
넋(이) 나가다	②	+	가슴에 못(을) 박다	③	x
입이 닳다	②	-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③	x
뜸(을) 들이다	②	+			

<표 23> 관용표현의 유형 별, 투명성 정도의 대조 결과

<표 23>에서 보듯이 관용표현의 의미 유형 분석 즉, 한·중 관용표현 의미가 같은 동형동의, 부분적으로 같은 부분 동형동의,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이형동의까지 총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의미가 같은 동형동의에 속하는 관용표현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같은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는 관용표현이 9개가 있었으며, 이형동의에 속하는 관용표현은 6개가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이러한 15개 관용표현들을 가장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4) MA JUN(2013)에서의 한·중 관용표현 대조표에서 나오는 관용표현의 유형을 참조하고 <표 23>를 만들었다.

문금현(1999)에서는 반불투명한 유형에 포함시킨 관용표현 ‘우물 안 개구리’를 예로 들어 보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 관용표현에도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글자만 알게 되면 이 관용표현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너무나 쉬운 표현이다. 그러나 문금현(1999)에서 반투명한 유형에 속하는 ‘파리를 날다’라는 관용표현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우물 안 개구리’보다 훨씬 어려운 표현이다. 왜냐하면 유사한 중국어 표현이 없어서 글자 표면의 뜻만 가지고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표현을 교육한다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의미 투명성에 따라 유형 분류하는 방법 외에도, 외국인 학습자 국가의 문화 배경 또한 관련시켜서 분류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 국가의 사회 문화 배경을 고려하여 관용표현을 교육시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관용표현과 대비해서 번역 가능성 여부를 유의하여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관용표현을 중국어 관용표현으로 번역할 때 대응되는 표현이 존재하는지 감안하여 관용표현을 대응 표현 존재형과 대응 표현 부재형으로 나누었다. 대응 표현 존재형은 완전 대응형과 부분 대응형으로 나누었다. 완전 대응형<sup>15)</sup>이란 한국어 관용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대응하는 중국어 관용표현의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은 각각의 구성요소만 알면 관용표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 대응형은 한국어 관용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형태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관용표현을 가리킨다. 이 유형의 관용표현은 비교를 통해 형태의 차이점만 지적해 주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응 표현 부재형이란 관용어는 한국어 관용어를 중국어 관용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 대응 표현이 존재하나 그 형태가 완전 다르고 대부분 문법 형태소나 해당 어휘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관용표현 분석 목록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에 제시된 관용표현들을 중국어 관용표현과 대조하고, 예문을 통해서 관용표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 임려(2011)에서는 형태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요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즉, 주요 구성요소가 같으면 형태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1) 귀(를)기울이다

중: 側耳傾听 ; 洗耳恭听 ; 洗耳傾听

한: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음

예문: 우리는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2) 눈(에) 띄다

1.

중: 出現在 ; 眼前看見 ; 被找到。

한: (무엇이) 눈에 보이거나 곧 발견되다.

예문: 망치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눈에 띄질 않았다.

不知錘子去哪儿了，實在是看不見。

2.

중: 顯眼 ; 眼打眼。

한: (무엇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다.

예문: 동생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弟弟的成績明顯提高了。

3) 잠이 들다

1.

중: 睡着

한: (사람이나 동물이)잠을 자는 상태가 되다.

예문: 깊이 잠들다.

熟睡。

2.

중: 指人死亡

한: (완곡한 말로)(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다.

예문: 영원히 잠들다.

長眠不起。

3.

중: 安靜下來 ; 平靜下來

한: (바람이나 물결이)움직이지 않고 가라앉은 상태이다.

예문: 태풍이 지나가자 거칠었던 파도도 잠들고 바다는 고요해졌다.

台風過境之後，狂嘯的海浪已經平息下來，海面變得很安靜。

4) 문(을) 열다

1.

중: 表示開業。

한: (회사나 가게가) 어떠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다.

예문: 우리 회사는 20년 전에 문을 열었다.

我們公司是20年前成立的。

2.

중: 開門(營業)。

한: (사람이) 하루의 장사나 일을 시작하다.

예문: 그는 추석인데도 약국의 문을 열었다.

儘管到中秋節了，他的藥店還是開門營業。

3.

중: 門戶開放。

한: (국가나 기관이) 문호를 개방하다.

예문: 한국은 사실상 1870년대 이후에야 서양 제국에 문을 열었다.

韓國事實上直到十九世紀七十年代以後才開始對西方諸國開放了門戶。

4.

중: 開放。

한: (단체나 기관이) 사람을 받아들이다.

예문: 그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문을 열었다.

那家圖書館向所有市民開放。

5) 등을 떠밀다

중: 硬讓人去做; 趕鴨子上架。

한: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다.

예문: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아이의 등을 떠밀어 겨우 학교에 보냈다.

孩子鬧着不想去學校，她使出九牛二虎之力才硬把孩子給送去了。

6) 뉘(이) 나가다

중: 掉魂; 失魂落魄。

<p>한: (사람이) 아무 생각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p> <p>예문: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그는 뉘이 나갔다. 女友突然提出分手, 使他失魂落魄。</p>
<p>7) 입이 닳다</p> <p>중: 磨破了嘴皮子 ; 苦口婆心</p> <p>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함</p> <p>예문: 어머니는 아이에게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당부했다.</p>
<p>8) 뚝을 들이다</p> <p>1.</p> <p>중: 醞釀。</p> <p>한: (사람이 일이나 계획을) 잘 이루어지도록 일정한 상태에서 충분히 무르익게 하다.</p> <p>예문: 사장님은 그 계획 차질이 없도록 뚝을 들였다. 老板爲了防止該計劃出差錯, 精心醞釀了好久。</p> <p>2.</p> <p>중: 悶 ; 磨蹭 ; 賣關子。</p> <p>한: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p> <p>예문: 그가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뚝을 들였다. 他也不說話, 磨蹭了好長時間。</p>
<p>9) 머리를 긁다</p> <p>중: 不好意思 bùhǎoyìsi, 難爲情 nánwéiqíng。</p> <p>한: 수줍거나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그 어색함을 무마시키려고 머리를 긁적이다.</p> <p>예문: 그는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머리를 긁으며 겸연쩍어했다. 他大概認識到自己的失誤, 不好意思地道了歉。</p>
<p>10) 고개(를) 숙이다</p> <p>1.</p> <p>중: 虛懷若谷 ; 自謙 ; 謙虛。</p> <p>한: (사람이) 겸손하다.</p> <p>예문: 김 교수는 배움이 깊지만 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金教授雖然學識淵博, 但是在別人的面前總是很自謙。</p>



<p>2.</p> <p>중: 低頭; 回落; 消退。</p> <p>한: (무엇이) 기세가 꺾이거나 굴복하다.</p> <p>예문: 더위가 한풀 고개를 숙였다. 酷暑有点儿消退了。</p> <p>3.</p> <p>중: 低頭致敬; 非常欽佩。</p> <p>한: (사람이 무엇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다.</p> <p>예문: 우리는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고개를 숙였다. 我們非常欽佩獨立戰士們的崇高的愛國精神。</p>
<p>11) 비위(를) 맞추다</p> <p>중: 拍馬屁, 阿諛奉承; 投其所好; 取悅。</p> <p>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정을 만족스럽게 하다.</p> <p>예문: 그 비서는 사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썼다. 那個秘書爲了取悅老板而費盡心机。</p>
<p>12) 틀에 박히다</p> <p>중: 一棵樹上吊死</p> <p>한: (생각이나 일처리에 있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틀에 박히다. (안 되는 일에) 고지식하게 끝까지 매달리다. 比喻想問題、辦事情太死板, 不知變通。</p> <p>예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절대로 융통성 없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 遇到難題千万不要一棵樹上吊死。</p>
<p>13) 하루가 멀다고[멀다 하고]</p> <p>중: 隔三差五; 三天兩頭。</p> <p>한: 거의 날마다.</p> <p>예문: 아이는 하루가 멀다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 孩子三天兩頭地玩儿電腦游戲。</p>
<p>14) 가슴에 못을 박다</p> <p>중: 留下創傷; 在心口上撒鹽。</p> <p>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p>

<p>예문: 이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네가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等着瞧吧, 我倒要看看你這樣在我心口上撒鹽, 自己能過得多好。</p>
<p>15)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p> <p>중: 黃口小兒; 乳臭未干; 稚氣未脫。</p> <p>한: (사람이) 아직 까마득히 어리다.</p> <p>예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주제에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你這個乳臭未干的家伙, 還想跟我打一架?</p>

1)은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며 대조 표현으로는 완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귀’가 한자 ‘耳’에 대응되고 ‘기울이다’가 한자 ‘傾’에 대응되므로 사전에는 ‘側耳傾聽; 洗耳恭聽; 洗耳傾聽’ 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대응 해석은 ‘側耳傾聽’이다.

2)는 이형동의에 속하며 대조 표현으로는 부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눈’이 한자 ‘眼’에 대응되고 ‘띄다’가 한자 ‘被看見, 突出, 顯示, 隔開, 隔離’ 여러 개에 대응되므로 전체적인 의미는 추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가장 빠른 대응 해석은 ‘眼前看見’, ‘眼打眼’ 두 개가 있는 것이다.

3)은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잠’이 한자 ‘眠’에 대응되고 ‘들다’가 한자 ‘進, 入’에 대응될 수 있으므로 쉽게 ‘入眠’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게다가 중국에서 ‘入眠’는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다’ 즉 ‘死亡’라는 파생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잘 이해되지만, 세 번째 해석은 대응하는 한자가 없어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4)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완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문’은 한자 ‘門’에 대응되고 ‘열다’는 한자 ‘開’를 대응될 수 있으므로 쉽게 ‘開門’이라는 의미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 관용표현은 파생된 의미가 여러 개 있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5)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제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

다. ‘등’은 한자 ‘后背’에 대응되고 ‘떠밀다’는 한자 ‘推’에 대응해서 ‘推后背’라는 뜻이 나타났다. 비록 그 뜻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중국 관용표현에서는 비슷한 표현, 즉 ‘赶鴨子上架’라는 것과 연관 지어 생동감을 가지고 기억하고 이해하기에 비교적 쉬울 수 있다.

6)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완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나뉘다’는 한자 ‘魂’에 대응되고 ‘나가다’는 한자 ‘出去, 離開, 掉’에 대응될 수 있는데 ‘掉魂’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나가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7)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완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입’은 한자 ‘嘴’에 대응되고 ‘닳다’는 한자 ‘磨破, 油滑, 世故’에 대응될 수 있는데 ‘嘴磨破’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磨破了嘴皮子’로 해석된다. 그런데 학습자가 ‘닳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8)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뜸’은 한자 ‘爛, 悶, 灸’에 대응되고 ‘들이다’는 한자 ‘付出, 讓進, 染’ 여러 개에 대응되서 전체적인 의미는 추측이 필요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가장 빠른 대응 해석은 ‘醞釀’, ‘磨蹭’이라는 해석보다는 ‘賣關子’이다.

9)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머리’는 한자 ‘頭’에 대응되고 ‘긁다’는 한자 ‘撓, 划’에 대응해서 ‘撓頭’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 동작이 수반될 때는 민망하거나 어색할 때가 많기 때문에 ‘難爲情’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10)는 이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재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고개’는 한자 ‘頭’에 대응되고 ‘숙이다’는 한자 ‘低, 謙虛’에 대응되는데 ‘謙虛, 消退, 非常敬佩’라고 해석이 된다. 이 관용표현의 해석은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유심할 필요가 있는 관용 표현이다.

11)는 부분 동형동의에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비위’는 한자 ‘脾胃, 胃口, 想法, 心情’에 대응되고 ‘맞추다’는 한자 ‘合, 針對’에 대응해서 추측이 필요한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가 이해하기 가장 빠른 대응 해석은 ‘投其所好’, ‘取悅’이라는 해석보다는 ‘拍馬屁’이다.

12)는 이형동의를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재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틀’은 한자 ‘模子, 框’에 대응되고 ‘박히다’는 한자 ‘嵌入, 刻’에 대응되는데 ‘一棵樹上吊死’라고 해석이 된다. 이 관용표현의 번역에 완전히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관용표현이다.

13)는 이형동의를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재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하루’가 한자 ‘一天’에 대응되고 ‘멀다’는 한자 ‘遠’에 대응되는데 이 관용표현의 해석은 ‘三天兩頭’가 된다. 학습자들이 단독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용표현이다.

14)는 이형동의를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분 대응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가슴’은 한자 ‘胸’에 대응되고 ‘못을 박다’는 한자 ‘釘釘子’에 대응되며, ‘在胸口釘釘子’라는 해석보다는 ‘在胸口撒鹽’라는 해석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15)는 이형동의를 속하고 대조 표현으로는 부재형으로 대조 번역이 된다. ‘안 마르다’가 한자 ‘未干’에 대응되는데 이 관용표현의 해석을 ‘乳臭未干’로 하면 보다 유사하여 기억하기 쉽다.

1) 부터 15) 까지는 각각 한·중 대응되는 번역과 예문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돕고 기억하기 용이하도록 대조 번역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정리한 한·중 대조 번역과 분석은 향후 학습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국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와 이해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목록을 마련해 보았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위한 관용표현 관련 연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용표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관용표현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그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관용표현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관용표현과 타 언어권별 관용표현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관용표현 대조 연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I 장에서는 관용표현의 이론적 전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관용표현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관용표현을 ‘두 개 이상의 어휘를 결합하여 형성된 구조이자, 기존의 어휘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용표현이 제3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에 주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 문화를 같이 가르치는 것이 관용표현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III 장에서는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수집함과 동시에 조사용 관용표현을 선정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교육 기관의 한국어 통합 교재와 중국인을 위해 전형적으로 편집된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공개된 35회-83회의 중·고급 수준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관용표현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로는 <부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351개의 관용표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세한국어(2013~2014)> 교재에서 나타나는 관용표현은 총 160개가 있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2 쓰기(2016)>에서는 169개가 있었고 공개된 35회-83회 TOPIK 기출 문제에서는 총 86개의 관용표현 항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 정리된 관용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IV장에서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고자 한국인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관용표현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관용표현 목록을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오류가 나타나기 쉬운 관용표현을 한·중 대조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중국인 전형 한국어 학습용 책, 최근 TOPIK 시험에서 나오는 관용표현을 수집하고, 실생활에서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을 직접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는 점과 관용표현에 대한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도에 대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조사 대상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행 연구에서는 본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관용표현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고흥희(2015),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0권, pp. 181-199.
- 교육부(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0년 8월 28일 기준.
- 국제교육진흥원(2002), 『한국어 속담100 관용어100』, 국제교육진흥원.
- 김몽(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대한 제언」, 『비교문화연구』 54, pp. 111-145.
- 김문창(1974), 「國語研究: 國語 慣用語의 研究」, 『국어연구학』 30, 국어연구학회, pp. 89-110.
- 김영란(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재 구성 연구: 한중 관용표현의 번역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령(201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용표현 이해 전략 분석과 교수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택(1971), 「이디엄(idiom)의 연구」, 『어문학』 25, 한국어문학회, pp. 97-112.
- 김한샘(2003),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pp. 43-67.
- 모홍월(2020), 「중국인 학습자의 문화 이해도 기반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박영순(1985), 「慣用語에 대하여」, 『국어교육』 53(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105-121.
- 박영준·최경봉(1996), 『관용어 사전』, 서울: 태학사.
- 박용배(2006),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훈(2011), 「고등학교 국어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0), 국어학회, pp. 381-384.
- 張婷婷(2010),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향(2013), 「중학교 관용표현의 지도 방안: 의미 투명성 정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환(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천(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아(2008),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인(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심혜령·심형철(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연구: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적 접근을 통하여」, 『중국어문』 61, 한국중국어문학회, pp. 267-294.
- 안연희(2005), 「국어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아려(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사전 편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 활용연습 1-1~6-2』, 연세대학교출판부.
- 왕보하(2010), 「韓·中 慣用語의 意味 對照 研究: ‘體言+用言’型 慣用語를 對象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왕안기(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연구: 신체어를 활용한 감정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덕자(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2013), 「관용표현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11), 「관용표현 교육의 연구: 2007개정 교육과정과 7학년 교과서를



-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이은진·권연진(201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상호 문화적 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25(1), 언어과학회, pp. 193-216.
- 이재춘(2010),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희(2009), 「메타언어 활동을 통한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철영(2019), 「중국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내용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배(2013), 「한국어 교재 및 TOPIK에 실린 관용표현의 투명성 정도와 편찬 실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려(2011), 「번역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어 유형 분석」, 『통번역교육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 159-178.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17), 「한국어 의미 특성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문화사.
- 장린(2020), 「한국문화 교육과정 설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정(2004),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8학년 보충학습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창규(2006), 「국어교과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7차 국어교과서 관용표현의 빈도와 교과 내용 분석을 주로 하여」, 배달말학회, pp. 61-86.
- 조현용(2003),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14(1), 이중언어학회, pp. 279-297.
- 천선영(2013), 「한·중 신체 관련 관용표현의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연(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목록 선정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수판(2021), 「중국인 대학원생 조별 발표 과제 수행의 난점(difficulties)에 한 사례 연구: 조원 회의 단계의 토론·토의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pp. 31-47.

- 황수관(202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희영(1978), 「한국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9, 성곡언론문화재단, pp. 65-166.
- 후문옥(2003),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Feng Minggan(2019), 「동물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중 문화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ullahorn, J. T. & J. E. Gullahorn(1963), An Extension of the U 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3), pp. 33-47.
- MA JUN(201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관용표현 대조 연구-중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yat Thida Oo(2016), 「한국어와 미얀마어 관용표현의 표현 양상과 문화 요소 대조연구: 교육용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Nunberg, G. & I. A. Sag & T. Wasow(1994), Idioms. *Language*, 70, pp. 491-538.
- ZHANG WEIXUAN((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목록 선정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楊玉(2007), 『漢語慣用語的語義范疇及隱喻認知研究』, 昆明: 云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李行健(2002), 『慣用語的研究和規範問題, 語言文字應用』, 語言文字應用.
- 邵敬敏(2007), 『現代漢語通論 (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陳光(1991), 『中國慣用語』,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焦佳(2011), 『漢語慣用語的語義研究』, 現代語文語言研究.

## <참고 사이트>

바이도(百度) <https://www.baidu.com>

블랙키위(BLACKKIWI) <https://blackkiwi.net>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학술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

한국어능력시험(TOPIK) <https://www.topik.go.kr>

問卷星 <https://www.wjx.cn>

中國知網 <https://www.cnki.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for Chinese Learners : Focus on expressions related to real life

Wan-Ting Guan

Idiomatic expressions belong to the subclassification of vocabulary and have a very high rate of appearance in written or spoken language, which refers to a semantic unit that combines two or more vocabulary to represent a new meaning.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diomatic expressions, Korean speakers habitually use in their daily lives, and Koreans can naturally acquire in school education or daily life, while foreigners cannot, so the learning is difficult and systematic educa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a large amount of idiomatic expressions were collected by referring to various materials such as Korean textbooks and TOPIK questions. In addition, Koreans living in Korea and middle and high-level Chinese studying Korean were studied to investigate the frequency an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collected earlier, and the results were examined. Through this, we identified idiomatic expressions that Koreans often use in their daily lives, and prepared a list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for effective learning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learners.

Keywords: idiomatic expressions, list selection, frequency of actual use, surveys, Chinese learners

## <부록>

### 한국인 설문조사 일부

한국인 설문조사			
<p>안녕하십니까?</p> <p>본 설문조사는 한국어 관용표현에 대한 사용빈도에 대한 하는 조사입니다. 본 설문을 통하여 한국어 관용표현의 효과적인 교육 목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p> <p>수집한 정보는 연구 목적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p> <p>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사용빈도 등급은 거의 안 씀, 가끔 씀, 자주 씀, 3개 등급으로 나누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거의 안 씀 B:가끔 씀 C:자주 씀</p>			
1	가슴(이) 아프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	눈(에) 띄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	마음(에) 들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4	바람(을) 쐬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5	애(를) 쓰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6	입(맛)에 맞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7	입이 (딱) 벌어지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8	가슴(이) 떨리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9	고개(를) 들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0	골머리(를) 앓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1	기름을 붓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2	눈 뜬 장님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3	눈살(을) 찌푸리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4	눈에 들어오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5	눈치(가) 빠르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6	더위(를) 타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7	마음(이) 맞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8	마음이 무겁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19	말할 것도 없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0	매(를) 들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1	비교(가) 안 되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2	뿌리(를) 뽑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3	세상을 바꾸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4	손에 땀을 쥐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5	손(이) 가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6	췌기(를) 박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7	어제 오늘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8	이름(이) 있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29	이목을 끌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0	자리(를) 잡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1	하늘의 별따기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2	국수(를) 떡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3	귀에 들어오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4	날(을) 잡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5	눈(길)을 끌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6	눈(을) 돌리다	A 거의 안 씀	B 가끔 씀 C 자주 씀

37	눈을 의심하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38	눈(이) 높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39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0	마음(을) 놓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1	미역국(을) 먹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2	속(을) 썩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3	손(을) 대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4	손(이) 크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5	어깨가 무겁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6	입에 대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7	(입에) 침이 마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8	입(을) 다물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49	잔(을) 올린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0	찬물(을) 끼얹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1	가슴(이) 터지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2	골치(가) 아프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3	기(가) 막히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4	눈앞이 캄캄하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5	눈(을) 맞추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6	담(을) 쌓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7	발(을) 빼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8	비행기(를) 태우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59	입 밖에 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0	진땀(을) 흘리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1	한술 더 뜨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2	발 벗고 나서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3	가슴을 울린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4	갈 길이 멀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5	고개를 끄덕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6	고개(를) 숙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7	귀(를) 기울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8	뒷등으로 듣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69	금(이) 가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0	길을 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1	꿈(을) 꾸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2	눈물(이) 나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3	눈물이 (땀) 돌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4	눈(을) 감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5	눈(을) 감아주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6	눈(이) 부시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7	눈치(가) 보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8	땀(을) 흘리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79	마음(을) 먹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0	마음을 잡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1	말 그대로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2	말(이) 통하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3	머리(를) 맞대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4	목소리(가) 크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5	목숨을 잃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6	못(을) 박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7	문(을) 닫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8	문(을) 열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89	박수를 치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90	발걸음을 맞추다	A 거의 안 씹다	B 가끔 씹다	C 자주 씹다



91	발목(을) 잡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2	발(이) 빠르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3	손뺌(을) 치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4	손사래(를) 치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5	손(에) 꼽히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6	손에 잡히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7	손에 쥐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8	손(을) 떼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99	시간 가는 줄 모르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0	신경(을) 쓰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1	앞뒤(를) 가리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2	앞뒤(를) 재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3	열(을) 올리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4	이(를) 갈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5	이름(을) 걸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6	인연을 맺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7	입(을) 떼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8	입(을) 열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09	장(을) 보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0	정신(이) 없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1	제 눈에 안경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2	천하를 얻은 듯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3	콧대(가) 높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4	피(가) 나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5	한 눈에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6	한 몸이 되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7	등(을) 떠밀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118	가면을 벗다	A 거의 안 씹	B 가끔 씹	C 자주 씹

## 중국인 설문조사 일부

중국인 설문조사
<p>谢谢您能抽出时间帮我做问卷调查。</p> <p>你好，我是韩国济州大学韩国语教育专业硕士的关婉婷，现在在写毕业论文，主题是韩中惯用表现研究，以实际生活为中心，本调查主旨是为了解中高级韩语学习者对韩国惯用表现的使用频度和理解度的现状，并以此为资料来选定韩语惯用表现的学习目录与理解偏误的分析。</p>
<p>아래의 관용표현 중 완전히 알고 있음 A 로 선택, 알는데 이해오류가 있음 B 로 선택, 모르고 있음 C 로 선택.</p>
<p>1. 귀하께서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p>
<p>A 10대 B 20대 C 30대</p>
<p>2. 귀하께서는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p>
<p>A 1년~2년 B 2년~5년 C 5년 이상</p>
<p>3. 귀하께서는 TOPIK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p>
<p>A 4급 B 5급 C 6급</p>
<p>4. ‘마음(에) 들다’의 관용표현 뜻 ‘(무엇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좋게 여겨짐’을 제대로 이해하나요?</p>
<p>A 완전히 이해함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C 모르고 있음</p>
<p>5. ‘눈치(가) 빠르다’의 관용표현 뜻 ‘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챈’을 제대로 이해하나요?</p>
<p>A 완전히 이해함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C 모르고 있음</p>
<p>6. ‘자리(를) 잡다’의 관용표현 뜻 ‘1)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함 2) (사람이) 일자리나 거처할 곳을 찾아 머무름 3) (생각이) 뿌리를 박음’을 제대로 이해하나요?</p>
<p>A 완전히 이해함 B 아는데 이해 오류가 있음 C 모르고 있음</p>



마음(에) 들다[뜻:(무엇이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좋게 여겨짐
눈치(가) 빠르다[뜻:남의 마음을 남다르게 빨리 알아챈
자리(를) 잡다[뜻:1.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함 2. (사람이) 일자리나 거쳐할 곳을 찾아 머무름 3. (생각이) 뿌리를 박음
갈 길이 멀다[뜻: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함
시간 가는 줄 모르다[뜻:(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바쁘게 지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함
정신(이) 없다[뜻:1. (사람이) 매우 바쁨 2. (사람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함
정신(을) 차리다[뜻:1. 잃었던 의식을 되찾음 2.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느이치며 정신을 다잡음 3. 사리를 분별하게 됨
귀(를) 기울이다[뜻: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자지고 주의를 모음
눈치(가) 보이다[뜻:남의 마음과 태도를 살피게 됨
신경(을) 쓰다[뜻:사소한 일애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
낮을 가리다[뜻:1. (어린아이가) 낮은 사람을 대하기 싫어함 2. (사람이) 친하고 친하지 아니함에 따라 달리 대우함
한숨(을) 쉬다[뜻:실망하여 의욕이 없음
한잔 하다[뜻:술을 마심
눈(에) 띄다[뜻:두드러지게 드러남
어제 오늘 [뜻:근래의 뜻임
눈(이) 높다[뜻:1.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음 2. 안목이 높음
고개를 끄덕이다[뜻:옳다거나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
눈물(이) 나다[뜻:슬퍼짐. 또는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함
말 그대로[뜻:말한 사실과 다름없음
말(이) 통하다[뜻:1. 수준이 맞거나 뜻이 맞음 2. 의사소통이 가능함
한 눈에[뜻:한꺼번에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뜻임
마음(이) 통하다[뜻:서로 생각이 같아 이해가 잘됨
밤 낮[뜻: '늘' 의 뜻임
손(에) 익다[뜻:일이 손에 익숙해짐
잠이 들다[뜻:1. 활동하지 않음 2. 죽음
추위(를) 타다[뜻:(사람이) 추위를 쉽게 느끼고 잘 견디어 내지 못함
기가 죽다[뜻:기세가 꺾여 약해지다
속(이) 시원하다[뜻: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상쾌하다
입이 무겁다[뜻:비밀을 잘 지키다
바람(을) 쐬다[뜻:1. 기분 전환을 위하여 바깥이나 딴 곳을 거닐거나 다님 2. 다른 곳의 분위기나 생활을 보고 듣고함
더위(를) 타다[뜻:(사람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함
비교(가) 안 되다[뜻:월등하거나 차이가 많음
날(을) 잡다[뜻:1. 결혼식 날짜를 정함 2. 어떤 일에 대비하여 미리 날을 저함
기(가) 막히다[뜻:1. 어이없음.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을 때 씌 2.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함
마음(을) 먹다[뜻:(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작정함
문(을) 열다[뜻:1. 영어 따위를 시작함 2. 문호를 개방함 3. 어떤 조직에서 장벽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받아들임
장(을) 보다[뜻:(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팔음
등(을) 떠밀다 [뜻: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다
냄새(가) 나다[뜻:직업적 특징이 드러남
빈틈(이) 없다[뜻:완벽함. 용의주도함
숨(이) 막히다[뜻:1.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낌 2. 어떤 상황이 심한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줌
신(이) 나다[뜻:흥겨워함
큰일(이) 나다[뜻:(사람이) 다루기 힘든 어려운 일이나 큰 문제가 생김

한눈(을) 팔다[뜻:(사람이)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정신을 딴 데로 돌림]
한턱(을) 내다[뜻:(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한차례 음식 따위를 대접함]
머리가 (잘) 돌아가다[뜻:임기응변으로 생각이 잘 떠오르거나 미치다]
손을 씻다[뜻:관계를 끊고 나쁜 일을 그만하다]
열(을) 받다[뜻:사람이 감정의 자극을 받거나 격분하다]
입(이) 가볍다 / 싸다[뜻:말이 많거나 아는 일을 함부로 읊기다]
마음(이) 맞다[뜻:(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생각이 같아 잘 어울림]
말할 것도 없다[뜻:당연한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음]
손(이) 가다[뜻:손질하거나 보살핌]
마음(을) 놓다[뜻:1. (사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함 2. (사람이 일 따위에) 무관심하거나 의욕을 버림]
골치(가) 아프다[뜻:(사람이) 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가 성가시거나 어려움]
꿈(을) 꾸다[뜻:희망함]
눈(을) 감다[뜻:1. (사람이) 죽음 2.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음]
눈(이) 부시다[뜻:너무 훌륭하여 황홀함]
땀(을) 흘리다[뜻:힘이나 노력을 많이 들임]
목소리(가) 크다[뜻:주장을 강하게 말함]
문(을) 닫다[뜻:경영하던 일을 그만두고 폐업함]
넋(이) 나가다[뜻:아무 생각이 없거나 정신을 잃음]
땀이 나다[뜻:(사람이) 몹시 힘들거나 애가 쓰임]
몸이 무겁다[뜻:1. (사람이) 피곤하여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음 2. (여자가) 임신함]
숨(을) 쉬다[뜻:(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거나 활동함]
얼굴이 빨개지다[뜻:부끄러워함. 또는 부끄럽고 민망한 상태가 됨]
말할 수 없다[뜻:말로 표현할 수 없음]
눈에 익다[뜻:본 적이 있는 느낌이 들다]
발이 넓다[뜻: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입만 아프다/입이 아프다[뜻:여러 번 말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
눈(길)을 끌다[뜻:관심을 모음]
손(이) 크다[뜻:1. 씹썩이가 후하고 큼 2. 수단이 좋고 많음]
어깨가 무겁다[뜻:무거운 책임을 져서 마음에 부담이 큼]
손(을) 떼다[뜻:1. (사람이)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둠 2.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마쳐 끝을 냄]
너 나 (할 것) 없이[뜻: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의미함]
눈(이) 가다[뜻:(사람이 무엇에) 자꾸만 시선이 쏠림]
마음(을) 졸이다[뜻:기장하여 초조해함]
맛(을) 보다[뜻:1. (사람이 무엇의) 느낌 따위를 경험함 2. (사람이) 매우 혼남]
머리(를) 식히다[뜻:(사람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함]
머리(를) 하다[뜻:(사람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파마. 염색 따위를 함]
몸에 배다[뜻:여러 번 겪거나 치러서 아주 익숙해짐]
몸이 가볍다[뜻:몸의 상태가 좋음]
왔다 갔다 하다[뜻:정신이 맑았다 흐렸다 함]
입이 닳다[뜻: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함]
귀꼬리만 하다[뜻:매우 적은 분량을 말함]
큰마음(을) 먹다[뜻:1. (사람이) 어려운 결심을 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짐 2. (사람이) 인심을 크게 씬]
큰코(를) 다치다[뜻:(사람이) 다루기 힘든 어려운 큰 문제가 생김]

귀가 가렵다/간지럽다[뜻:남이 제 말을 한다고 느끼다]
눈(을) 붙이다[뜻:잠을 자다]
땀(을) 들이다[뜻:말이나 행동을 바로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머리(를) 굴리다[뜻:머리를 써서 생각하다]
머리(를) 굽다[뜻:수줍고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어색함을 무마시키려고 머리를 굽적이다]
머리(를) 꺾다[뜻:중이 되다]
속(이)보이다[뜻:영광한 마음이 들여다보이다]
입이 짧다[뜻:싫어하거나 먹지 않는 음식이 많다]
코가 높다[뜻: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뿌리(를) 뽑다[뜻:어떤 것이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 근원을 없애 버림]
속(을) 썩이다[뜻: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좋지 못한 일로 몹시 괴로워함]
애(를) 쓰다[뜻:힘을 들임]
입(맛)에 맞다[뜻:(취향에 일치하여) 마음에 들음]
입(을) 다물다[뜻:말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던 말을 그침]
한술 더 뜨다[뜻:1. 이미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 일에 대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영똥한 짓을 함 2. 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미리 헤아려 거기에 대처할 계획을 세움]
고개(를) 숙이다[뜻:1. 남에게 승복하거나 아첨하거나 겸양하는 뜻으로 머리를 수그림 2. 기세나 꺾이여 누그러짐]
박수를 치다[뜻:칭찬하며 찬사를 보냄]
입(을) 열다[뜻:말을 시자함. 또는 비밀 따위를 털어놓음]
가슴(이) 벅차다[뜻:(흥분, 감격 따위의) 감정이 북받치며 감동함]
꽃(이) 피다[뜻:(일이나 현상이) 무르익거나 번영함]
눈 깜짝할 사이[뜻:매우 짧은 순간을 말함]
눈(을) 뜨다[뜻:(사람이 어떤 분야에) 지식을 얻거나 이치나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앎]
마음(을) 쓰다[뜻:1. (사람이 일이나 문제에) 신경을 써서 깊이 생각하거나 걱정함 2.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베품]
머리(가) 아프다[뜻:(일 따위가) 어렵고 성가시고 귀찮음]
뉘니 뉘니 해도[뜻:이러쿵저러쿵 말해 보아 도를 의미함]
바닥(이) 나다[뜻:(물건이나 돈이) 다 써서 없어짐]
비위(를) 맞추다[뜻:(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정을 만족스럽게 함]
틀에 박히다[뜻:짜인 형식대로 하여 진부함]
하루가 멀다고 하고[뜻:거의 날마다]
가슴에 못(을) 박다 [뜻:마음 속 깊이 분한 생각이 맺히게 하다]
귀에 익다[뜻:자주 들어 버릇이 되다]
귀를 의심하다[뜻: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
귀에 거슬리다[뜻:듣기에 언짢은 느낌이 들며 기분이 상하다]
낮이 뜨겁다[뜻:1. 매우 부끄럽다 2. 보기에 민망하다]
눈에 거슬리다[뜻: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한 느낌이 있다]
눈에 밟히다[뜻:자꾸 생각하다]
눈에서 벗어나다[뜻:감시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뜻: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또는 나이가 어리다]
물불을 가리지 않다[뜻:1. 어려움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다 2.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안 하고 행동하다]
바가지 쓰다/찌우다[뜻:요금이나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내거나 내게 하다]
색안경을 끼다[뜻:편견을 가지다]
속(이) 타다[뜻:걱정이 되어 마음이 달다]
애를 먹다[뜻:고생을 많이 하다]

어깨가 가볍다[뜻: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
입(을) 맞추다[뜻: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
입만 살다[뜻:말에 따르는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다]
귀 죽은 듯하다[뜻:매우 조용하다]
귀도 새도 모르게[뜻:마무도 모르게]